

2019 / 02

Vol. 58

www.hwashin.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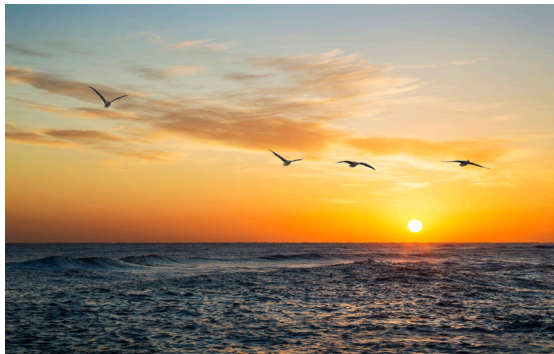
화신가족이 만들어가는 진솔한 삶의 이야기

하늘라리



“ 다 잘될거예요!

아무리 추워도, 새해는 떠오르듯
아무리 어려워도, 희망은 있습니다.
우리 곁엔 ‘우리’가 있기에
우리 앞엔 ‘꿈’이 있기에
2019년 새 아침
더 힘껏 날아오르리라 다짐합니다.
작년 한 해 수고하셨습니다.
올해도 우리, 힘차게 나아갑시다!



사보기자단
화신 총무팀 유경일 khan@hwashin.co.kr / 화신 총무팀 안정희 jeong-hee.an@hwashin.co.kr / 화신 글로벌기획팀 최영욱 Young-wook.Choi@hwashin.co.kr

HWASHIN
2019 신년호

발행일 2019년 2월 01일 / 통권 제57호 발행인 정서진 | 편집인 장의호 | 발행처 사보편집부
발행처 화신 사보편집부 www.hwashin.co.kr 경북 영천시 안하공단 1길 14 우편번호 38828 T. 054.330-5000 F. 054.331-3252
기획·취재 사보편집부 T. 054.330-5135 khan@hwashin.co.kr
디자인 비앤비커뮤니케이션즈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26길 37 B&B빌딩 T. 053.751-0777
「하늘타리」 한울타리를 소리나는 대로 적은 것으로 함께 나누고픈 화신의 여러 가지 일들을 한울타리에 담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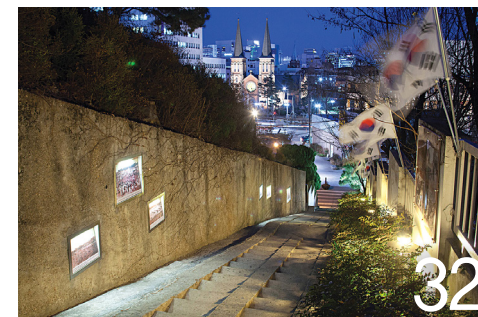
06



20



30



32



44

CONTENTS 2019 WINTER

TOP & TOPIC

기획테마 1	CEO 신년사	6
화신포커스 1	2019 대형SUV시장의 강자, 현대 팰리세이드	16
화신포커스 2	Smart Factory, 화신	20
Inside 화신		22

PEOPLE & TALK

화신영리더	2019년 대리·주임 승진자 인터뷰	28
프로의 다이어리	물 속에서 느끼는 무한자유 스쿠버다이빙	30
기자의 이슈톡	젊고 활기찬 대구를 만나요!	32
오피스 절친	화신 두 거인(巨人)의 아름다운 이별	36
행복한 사진관	화신인스타그램	40
동행의 기쁨		42

VIEW & FUN

Car 트렌드 분석	내일의 기술을 오늘 만나다! TESLA 모델S 시승기	44
글로벌리포트	온대! 차량공유의 시대	48
트렌드돌보기 1	2019년 제왕의 포효가 울린다! 뮤지컬 “라이언 킹”	52
트렌드돌보기 2	겨울철 눈길·빙판길 안전운행 8계명	54
편집후기		56

희망을 향한

새로운 시작

어려운 중에도
항상 희망을 바라보고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됩니다.
무슨 일이든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법입니다.
지금의 어려움 또한
반드시 끝이 날 것이라고 믿고
그 끝을 앞당기기 위해
모두 함께 애써주기를 당부드립니다.
힘든 상황에도
항상 맡은 바 최선을 다해주시는
화신의 임직원 여러분에게
응원과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 CEO 신년사 中

CEO 신년사

“동심동덕(同心同德)”

‘서로 같은 마음으로 덕을 함께 한다’

같은 목표를 위해 여럿이 마음을 합쳐 힘을 이르는 말입니다.

2019 기해년(己亥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한 해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도 화신의 경쟁력 강화에 힘써주신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2019년 새해에도 여러분 모두가 항상 건강하고 각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화신 가족 여러분!

세계 경제는 변동성 및 불확실성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고 매해마다 경영환경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마-중 무역분쟁의 여파와 신흥국 금융 리스크 등 국제적인 영향 뿐만 아니라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이나 최저임금의 인상 등 국내의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기업 경영 상 매우 큰 부담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 해를 새롭게 시작하는 시기에 매번 쉽지 않은 난제들을 말씀드려 송구스럽기도 하지만 이러한 이슈들이 우리가 분명 유념하고 있어야 될 사항임은 분명합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말처럼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더라도 우리가 무엇을 유의하고 어떻게 해나가야 할지 알며 스스로 믿음을 잃지 않는다면 반드시 그 성과는 따라 오리라 생각합니다.

항상 맑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주시는 임직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와 격려를 드리면서 몇 가지 당부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먼저 **‘생존 가능형 사업 구조 확립’**입니다.

최근 몇 년간 수익성이 좋지 못한 상황이 이어지면서 우리의 최우선 당면 과제가 생존이라는 키워드가 되었습니다. 몇 해 전 조선업의 불황에 이어 지금은 자동차 제조업 또한 큰 불황의 터널을 지나고 있으며 우리 뿐만 아니라 고객사의 실적도 많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제조업의 위기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급박한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가 많은 노력을 거듭하여 지금까지 성장해왔지만 지금까지 성장해온 방식은 더 이상 효과를 발휘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사업구조나 업무방식을 근본부터 바꾸어야 합니다.

현재 영위하고 있는 사업에서 수주 물량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단순한 물량보다 수익성이 전제되도록 해야 하고, 더 나아가 고객의 다변화, 생산하는 제품의 다변화, 추진하는 사업의 다변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사업 리스크를 분산시키고 여러 방면에서 기회를 창출하여 기업이 영속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두번째로 **‘원가 경쟁력 혁신’**입니다.

앞의 생존 가능형 사업 구조의 확립이라는 메시지가 좀 더 큰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라면 원가 경쟁력 혁신은 현재의 당면한 과제에 집중하고 개선을 요하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원가 경쟁력 혁신의 토대 위에서 생존 가능형 사업 구조가 확립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동차 및 부품 제조업 업황 자체가 좋지 못한 상황이다 보니 우리가 투여하고 있는 많은 노력들이 그만큼의 보상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원가라는 키워드를 내걸고 몇 년 간 개선을 진행해오면서 분명 성과도 있었고 그만큼의 혁신 피로도도 있을 수는 있지만 한 번 더 원가 측면에서 제반 업무를 점검해보고 원가 구조 및 프로세스 개혁이 필요한 부분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변화를 이끌어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제조업 경쟁력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원가 구조의 혁신을 이루고 그것을 디딤돌 삼아 우리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랍니다.

세번째는 ‘최적의 가치 품질 실현’입니다.

품질은 대외로 비쳐지는 우리의 얼굴이자 신뢰의 징표입니다. 품질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기능이 많은 제품, 저렴한 제품이라고 해도 효용이 없습니다.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금까지 우리는 많은 투자를 해왔습니다. 보다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인다면 더 나은 수준의 품질을 달성하는데 도움이 되겠지만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더 많은 투자를 통해 품질을 확보하는 것은 수익에 악영향을 줄 수 있고 오히려 기업의 영속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의 양보다는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기존에 구축되어 있는 시스템의 활용도를 높이고 시스템 간 통합과 조정이 잘 이루어지도록 하며 그 동안 쌓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품질문제를 선제적으로 해결하고 품질비용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과 달성하고자 하는 품질 수준이 최적화되어 고객에게 양질의 가치를 전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준수’입니다.

오늘날 환경이 급변하고 시민의식 수준이 올라가면서 기업에 요구되는 사회적인 책임에 대한 기대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기업 활동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지에 따라 해당 기업에 대한 이미지가 급변하게 되고 최근에는 이러한 행동들을 법률적으로 규제하는 추세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것은 어떠한 거창한 행동이 아니라 기업들이 기본에 충실하고 상식적인 규범과 절차를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이해하고 공유하는 공정한 룰과 방법을 준수한다면 우리를 바라보는 외부의 시선은 자연스레 좋아질 것이고, 요구하는 책임 또한 충실히 이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자신의 역할과 업무가 기본에 충실하고 있는지 원칙에 어긋난 부분은 없는지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고객과의 관계, 협력업체와의 교류, 노사 간의 소통, 조직 구성원 간의 이해 및 나아가 지역사회의 소통에서도 상식이 통하고 규범적으로 옳은지를 잘 점검해주기를 바랍니다.



화신 가족 여러분!

지금은 우리 화신 뿐만 아니라 동종업체나 유사한 규모의 업체들도 전반적으로 수익성이 악화되는 어려움에 처해 있고 고객사도 실적 악화로 인해 곤란함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려운 중에도 항상 희망을 바라보고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됩니다.

무슨 일이든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법입니다. 지금의 어려움 또한 반드시 끝이 날 것이라고 믿고 그 끝을 앞당기기 위해 모두 함께 애써주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동심동덕(同心同德)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서로 같은 마음으로 덕을 함께 한다는 뜻으로, 같은 목표를 위해 여럿이 마음을 합쳐 힘을 이르는 말입니다.

현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동심동덕이 아닐까 싶습니다. 힘든 상황에도 항상 맡은 바 최선을 다해주시는 화신의 임직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과 함께 조금만 더 견디자 힘내자 하는 응원과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화신의 모든 임직원 여러분과 동반자로 함께 해온 협력사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오늘 포상을 받은 수상자 모두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시작하는 2019년 한 해 우리 화신의 무궁한 발전과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충만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19년 1월 3일
대표이사 사장 정 서 진

2019 화신 신년사

미국법인

북경법인

창주·충칭법인

브라질법인

인도법인

미국법인 신년사



미국화신 법인장 홍규태

“모든 임직원들이
뜻을 하나로 모아
우수한 기업 “화신”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화신 가족 여러분, 다사다난 했던 무술년이 저물고 2019년 기해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2019년 기해년은 뜻깊은 황금돼지의 해입니다. 돼지는 예부터 행운과 재복을 상징하는 동물입니다. 기해년에는 여러분 한분한분에게 황금빛 행운과 재복이 가득하고, 가정에는 건강과 화목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해 미국 화신은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모든 임직원들이 “One Team One Dream”의 구호 아래 힘을 모아 어려움을 극복하고 나름의 성과를 이루어 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2019년 미국 화신은 더욱 새로워 질 수 있도록 현장에서부터 기초질서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임직원이 주인의식, 협동심, 선제적 활동의 3가지 마인드를 가지고, 다시 한 번 “One Team One Dream”의 정신으로 목표를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고객사의 판매 상황이 좋지 않아 미국 화신도 어려운 상황이지만, 최선을 다한다면 이겨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올 해 진행되는 2개의 신차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어려운 시장 상황을 극복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중대 품질 문제로 인해 화신의 브랜드 가치가 하락하지 않도록, 고효율의 개선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회사의 가치를 더욱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전 사고는 우리의 모든 것을 잃게 만든다는 위기 의식을 가지고, 안전 규정 준수를 더욱더 강화하고 관리자부터 솔선 수범하여, 위험 요소를 사전에 방지하여 안전한 미국 화신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임직원들이 뜻을 하나로 모아 우수한 기업 “화신”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북경법인 신년사



북경화신 법인장 김영돌

“현재 상황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극복하는 북경화신만의 저력을 보이겠습니다.”

2019년 기해년(己亥年) 새해가 시작 되었습니다.

항상 변함없는 관심과 끊임없는 애정으로 북경화신의 발전을 위해 힘써준 직원 여러분의 깊은 노고에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을 돌아보면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으로 인한 불안한 경제적 환경과 전년도에 이어 자동차 생산량이 급감하는 고단한 한 해가 되었습니다.

2019년에도 이러한 위기를 한 번에 극복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시장 자동차 판매실적이 둔화되고 고객사의 단가인하 요구와 물가상승은 경쟁력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생존 가능형 사업 구조가 되도록 업무방식을 바꾸는 한편, 고객을 다변화하여 리스크를 줄이고 제품 수익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또한 원가 경쟁력 혁신을 위하여 제조 뿐만이 아니고 전 직원 모두가 맡은 자리에서 전체의 업무를 대상으로 원가혁신을 만들겠습니다.

최근 몇 년간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우리도 저성장과 수익성 악화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극복하는 북경화신만의 저력을 보이겠습니다.

과거에도 그랬듯이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아 또 다른 성장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와 적극적인 자세로 맡은 바 책무를 다할 것이며, 저를 포함한 북경화신 직원은 어려운 경영환경을 극복하고 새로운 제2의 도약을 이루어 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북경화신이 있기까지 맡은바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온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9년 한 해 우리 화신의 무궁한 발전과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충만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창주·충칭법인

신년사



창주·충칭화신 법인장 박경도

“창주법인은 수익성 확보, 충칭법인은 안정화/생산량/수익성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화신그룹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해년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작년 창주법인은 NU신차효과 및 납품가 현실화로 비교적 개선된 실적을 달성하였으며 충칭법인은 SQ(라페스타)신차의 시장반응이 좋아 생산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창주/충칭법인의 통합관리가 적용되어 조직통합을 진행한 한해였습니다.

한편, 17년에 이어 18년도 고객사 판매부진으로 수익성 악화, 납품가의 강제조정, BHMC 5공장 생산량저하 등의 어려운 경영환경을 겪었으며 그나마 올해 생산계획이 작년 대비 조금 증가된 목표설정이 되었습니다.

2019년은 수익성 개선 및 품질관리를 위해 주력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내부적으로 양산라인의 생산성 향상, 철저한 품질관리, 외부적으로 고객만족 및 협력업체 지원의 목표가 있습니다. 또한 합작법인관련 파트너사와의 이해관계 유지에도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올 한해 목표 달성을 위해 5가지를 중점적으로 진행할 것입니다.

첫째, 창주/충칭법인의 생산량 증가로 수익성 확보가 필요하며 자체 개선을 통해 경영 개선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둘째, 고객사 품질만족을 위해 철저한 품질관리를 하며 제품의 사전 품질문제를 예방하고 교육을 통한 직원 품질의식을 확립할 것입니다.

셋째, 창주/충칭법인 통합관리로 양시간 업무 수평 전개활동을 실시하여 업무프로세스의 지속적 개선을 추진할 것입니다.

넷째, 합작파트너사와 지속적인 소통으로 긍정적 관계를 유지하고 합작법인의 발전을 도모할 것입니다.

다섯째, 18년 한해 타고객사 OEM 수주활동을 지속 진행하였으나 특별성과는 없었으며 19년에도 더욱 수주활동을 강화하여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내년에도 고객사의 차량 판매부진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어려운 경영환경의 한 해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고객사 생산계획이 작년 대비 소폭 증가한 수준에 그치고 있어 수익적 개선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생산량 확보에 따른 생산라인의 효율적 운영과 경영개선활동을 통한 원가절감, 철저한 품질관리는 화신해 납천 창주/충칭법인의 임직원이 고민해야 하는 지속적인 과제입니다. 올 한해 어려운 경영환경을 극복하고 최선을 다하여 최대한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 더욱 더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2019년 기해년 황금 돼지의 해를 맞이하여 화신그룹 임직원 모든 가정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며 소원 성취하는 올 한해 되시길 기원합니다.



브라질법인 신년사



브라질화신 법인장 한영섭

“ERP 시스템 SAP 성공설치,
2년 연속 영업이익 쾌거!
높은 것을 꿈꾸며 크게
생각하는 법인이 될 것입니다.”

기해년(己亥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도 화신 가족 모두에게 희망이 가득하고 가정에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지난 한해도 브라질은 국내외 다양한 이슈로 다사다난한 해를 보냈습니다. 국내적으로는 대대적인 화물파업으로 상반기 경제가 마비되었고, 대선을 앞두고는 정치적, 사회적으로 큰 혼란을 겪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국외적으로 발생한 미중 무역전쟁과 아르헨티나 통화 위기로 브라질 환율은 또 한번 휘청였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화신 브라질 법인은 2018년 ERP시스템 SAP를 성공적으로 설치하여 안정화 절차를 밟고 있으며 품질 5스타, IATF와 ISO 및 OHSAS 인증을 또 한번 유지하며, 2년 연속 영업이익을 이루어내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과 불안으로 환율은 아직까지 불안정한 모습이며, 연금개혁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2019년 브라질은 여전히 새로운 위기 앞에 직면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브라질 법인은 아래 주요 추진사항을 실천할 것입니다.

첫째, 지난해부터 브라질 화신은 신규 차종(BR2)의 양산 준비를 위해 신차종 라인 설치를 위한 설비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비록 여러가지 불안과 악재가 있지만 BR2의 성공적인 양산으로 극복해 나갈 것이며, 앞으로 BR2의 성공적인 양산이라는 목표에만 집중하여 브라질 법인 모든 임직원들이 협업하여 전념을 다하고 노력할 것입니다.

둘째, BR2의 성공적인 양산과 더 많은 원가절감으로 영업 흑자 기조를 더욱 공고히 하겠습니다. 목표수익 관리로 지속적인 원가절감 및 경비 절감을 추진 할 것입니다. 기업의 첫번째 목적은 수익창출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새기며 모든 임직원이 노력할 것입니다.

셋째, 최근 국내외적으로 완성차 협력업체들에 안전사고 및 대형화재가 지속 발생하여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화신 브라질 법인의 종업원들은 언제나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를 예방하겠다는 마인드로 화재 및 안전사고를 대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브라질 법인은 2018년에도 품질5스타를 유지해냈습니다. 우리의 최우선 과제는 고객 만족이며, 품질은 그 첫 단추입니다. 새해에도 품질5스타의 유지 및 관리를 위해 모든 품질문제 ZERO화에 도전할 것입니다. 특히 BR2양산 초기 품질문제를 조속히 안정화하여 고객 만족에 심혈을 기울일 것입니다.

Sonhar Alto, Pensar Grande! 브라질 법인은 저 높은 것을 꿈꾸며 크게 생각하는 법인이 될 것입니다. 우리 화신 임직원 여러분! 함께 힘을 모아 화신의 2019년 한 해를 잘 써 내려가 봅시다.

다시 한번 己亥年 새해 화신 가족 모두에게 건강과 행운이 넘치는 한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인도법인 신년사



인도화신 법인장 박윤규

“글로벌 자동차 시장의 침체로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위기타파의 선두에 설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9년 기해년(己亥年) 새해가 밝아 왔습니다. 황금돼지띠인 새해를 맞아 화신가족 여러분과 가정에 바라는 일들 모두 성취하시고 웃음 넘치는 한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지난 2018년 인도법인은 어려운 경영환경 속에서도 AH2 신차라인 설치 및 양산을 성공적으로 Launching 시키고, 수익성 개선 활동 및 협력사 구조조정 등 소기의 성과를 이룬 한 해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주재원들과 현지 직원들의 노력뿐만 아니라 어려운 가운데서도 본사에 계신 많은 분들의 아낌없는 지원의 결과라 생각하며 감사 말씀드립니다.

지난해 인도경제는 고유가와 미중 무역분쟁, 그리고 금융시장 불안에도 불구하고 민간소비 및 인프라 투자 등 내수확대에 힘입어 7.4%대의 성장을 기록하였고, 그에 힘입어 인도 자동차 시장에서 HMI는 70만대 계획에 71만3천여대의 판매 실적을 달성하였으며 인도법인 또한 Full 생산체제로 운영하였습니다.

올해 인도 경제전망은 금리인상과 대외환경 악화에도 불구하고 구조개혁의 부작용 완화, 고용시장 개선등으로 인한 민간 소비확대, 그리고 인프라투자 등에 힘입어 7%중반의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전문가 들은 예측을 하고 있으며 2019년 인도자동차 시장 또한 글로벌 시장의 침체에도 불구하고 인도는 자동차의 대중화의 영향으로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갈 전망입니다. 이에 발맞춰 현대자동차의 판매 및 생산 계획은 전년대비 약 4만대 증가한 74만대 생산계획을 하고 있습니다.그리고 기아자동차도 안드라 프라데시 주에 건설중인 공장에서 올해 9월에는 신차가 양산될 예정입니다.

올 한해 인도법인은 주고객사인 HMI와 KMI의 생산 계획에 대응 하기 위해 현대차종인 AH2의 증량공사와 QX, A3 신차라인 설치및 양산, 기아차종인 SP2의 신차라인 설치 및 양산등으로 어느해 보다도 바쁜 한해를 보내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한해에 신차 3차종의 양산 준비와 기존라인의 증량공사를 한 경험미 없기에 올해는 또 다른 도전이 될 것입니다.

인도법인은 이러한 도전을 철저한 사전준비와 계획으로 잘 극복하고 고객사의 생산계획에 차질없이 대응 할 뿐만 아니라 수익성과 품질적인 측면에서도 한층 경쟁력을 키우고 협력사의 상생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첫째, 수익성 부분에서 목표 영업이익 초과 달성.

둘째, 품질에서는 고객사 입고품질 7 PPM 달성 및 품질5스타 목표달성.

셋째, 신차종의 완벽한 4M 준비 및 양산 Launching.

넷째, 협력사의 생산,품질 안정화 및 경쟁력확보 등을 목표로 업무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인도법인은 현지인 전문 인력 육성을 통한 국내 및 해외법인 지원과 타 OEM 수주 활동도 지속적으로 전개 하여 그 결실이 맺어 질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뿐만 아니라 미국, 중국 등 글로벌 자동차 시장의 침체로 인한 화신그룹 전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시기에 인도법인은 그룹 위기타파의 선두에 설수 있도록 전 주재원과 현지인이 하나로 단합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9년은 화신가족 여러분과 가정에 더욱더 희망차고 건강하게 뜻하는 모든일 이루는 새로운 해가 되기를 다시 한번 기원 합니다.

2019 대형SUV시장의 강자, 현대 팰리세이드

글 사진 설계2팀 심하영 주임

“우리의 일상을 바꿀 대형 SUV, 그 내면에 화신의 노력을 담은 팰리세이드를 소개하겠습니다.”
2018년 12월 11일, 현대자동차는 플래그십 대형 SUV 팰리세이드(LX2)를 야심차게 출시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2017년 코나를 시작으로, 2018년 신형 싼타페, 투싼 F/L을 출시하며
SUV 라인업을 재정비했고, 팰리세이드로 소형에서 대형을 이루는 라인업 확장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대형 SUV 시장 진입이 늦은 만큼,
충분히 다듬고 좋은 결과를 냈다는 현대자동차의 설명입니다.





현대차의 진심을 담다

현대인에게 자동차는 단순한 이동수단을 넘어 삶의 중요한 가치를 함께하고 나를 위한 시간을 보내는 공간이 되고 있습니다. 팰리세이드는 '일상'에 가치를 더해줄 차입니다. 현대자동차 디자인센터를 총괄하는 이상엽 전무는 "팰리세이드는 모든 가족의 여정과 라이프스타일은 물론 그 의미를 고민하는 현대차의 진심이 담긴 차"라고 설명했습니다. 우리의 일상을 바꿀 대형 SUV, 화신의 노력이 담긴 팰리세이드를 만나보겠습니다.

팰리세이드(LX2) 소개

팰리세이드에 대한 국내 시장의 반응은 폭발적입니다. 현대자동차가 처음 계획한 2019년 CAPA는 약 1만 6천대였으나, 사전예약기간 8일만에 2만대를 넘어섰습니다. 팰리세이드의 어떤 점이 소비자를 이끌었을까요? 높은 편의 사양, 넓고 활용도 높은 실내 공간, 가격 경쟁력을 두루 갖췄다는 점이 흥행 요인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팰리세이드의 세가지 매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① 넓고 활용도 높은 실내 공간

구분	복합 연비 (km/l)	전장	전폭	전고	축간 거리	윤거 (전)	윤거 (후)	엔진	배기량	최고출력 (PS /rpm)	최대토크 (kg·m/rpm)	구동방식	서스펜션
디젤 2.2	11.8	4,980	1,975	1,750	2,900	1,708	1,716	e-VGT	2,199	202/3,800	45.0/ 1,750~2,750	FF/AWD	맥퍼슨 스트럿/ 멀티링크
가솔린 3.8	9.6	4,980	1,975	1,750	2,900	1,708	1,716	GDi	3,778	295/6,000	36.2/5,200	FF/AWD	

연비_ 2WD 18인치 7.8인승 기준

팰리세이드는 동급 중 가장 긴 축간거리로 넓은 실내공간을 구현했습니다. 경쟁 차종으로 꼽히는 포드 익스플로러보다 40mm 넓습니다. 특히 동급 최대 2열 레그룸(1,077mm)을 적용하고, 성인이 탑승해도 불편함이 없는 3열 헤드룸을 확보해 실내 거주성은 물론 공간활용도를 높였습니다.

② 높은 편의 사양

팰리세이드에는 차내 환경을 쾌적하게 하고, 운전자의 주행을 돕는 기술들이 적용되었습니다. 팰리세이드를 더욱 특별하게 하는 기술들을 알아보겠습니다.

❖ 험로주행모드 (Multi Terrain Control)

다양한 노면(MUD, SAND, SNOW)의 주행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주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기술로, 국산 SUV 최초로 적용되었습니다. 가속 페달이나 구동계의 반응 정도만 바꾸는 일부 수입 SUV의 시스템과는 달리 각 바퀴에 전달되는 구동력과 제동 시스템까지 활용하는 입체적인 시스템입니다.

❖ 확산형 천장송풍구 (루프 에어벤트)

현대자동차가 자동차 업계 최초로 개발한 기술로 공조기기의 바람이 직접적으로 승객에게 가지 않도록 조절 가능하게 합니다. 천장을 통해 실내 공기를 확산시켜 1열부터 3열까지 원활한 공기순환을 돕습니다.

❖ 액티브 노이즈 컨트롤 (Active Noise Control)

모든 소리는 고유의 파형을 갖고 있습니다. 이 파형과 역(逆) 형태의 파형이 부딪지면 그 음역대의 소리가 상쇄되는 원리를 이용한 기술입니다. 차량 내부에 어떤 소음이 많이 발생하는지를 분석하고, 역 위상의 음파를 스피커로 내보내 소음을 최소화합니다.

③ 경쟁력있는 가격

팰리세이드의 가격은 3,475~4,408만원으로 경쟁차량인 모하비(4,138~5,083만원), 익스플로러(5,460~5,710만원) 보다 저렴합니다. 높은 가격 경쟁력으로 오히려 산타페 TM을 걱정해야 할 정도라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현대자동차 김덕훈 책임은 소비자 입장에서 수용 가능한 가격을 놓고 초기 개발에 착수하여 매력적인 가격을 형성하는 것이 가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팰리세이드의 숨은 공신, 화신

Q

팰리세이드 개발에 임했던 각오?

팰리세이드의 경우 현대자동차의 플래그십 대형 SUV로서 기존 중형 SUV(산타페, 쏘렌토)대비 가혹한 내구 성능 만족이 필요했습니다. 선행차(UM/TM) 양산시 축적된 화신의 기술력을 토대로 원가경쟁력 확보 및 내구만족을 목표로 도전하였습니다. [설계2팀 이태영 대리]

A

Q

개발 과정에서 어려웠던 점?

무려 10가지나 되는 사양수와 가혹한 내구를 만족시켜야 하는 어려움이 존재했습니다. 개발 당시 자동차 시험에서 내구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는 정말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TM이라는 양산차종 C/O로 인해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은 매우 제한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유관부서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인해 내구 문제점들도 개선을 할 수 있었으며, 많은 화신인들의 노력으로 인해 지금의 LX2가 탄생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설계2팀 정동주 대리]

A

Q

기대하는 점?

플래그십 대형SUV인 팰리세이드(LX2)를 성공적으로 양산시켰기 때문에, 이 경험으로 후속 차종 개발을 훨씬 더 잘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시장에서 흥행하는 팰리세이드가 회사에 많은 이익을 가져오고, 성장의 발판이 되길 기대합니다. [설계2팀 정동주 대리]

A



Smart Factory, 화신포

글 사진 차체기술팀 박한진 과장

스마트 팩토리 성과대회 경북도지사상 수상

스마트 팩토리는 설계·개발, 제조 및 유통·물류 등 생산과정에 디지털 자동화 솔루션이 결합된 정보통신기술(CT)을 적용하여 생산성, 품질, 고객만족도를 향상시키는 지능형 생산공장을 말한다.

▣ QX용접 라인 ROBOT 관리시스템 부분

12월 13일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 주관 2018년 스마트 팩토리 성과 대회 행사가 진행되었다. 스마트 팩토리 보급 확산 관련 우수 기업 포상 및 성과 사례 내용 공유를 위한 자리였다. 우리 회사에서는 QX용접 라인 ROBOT 관리 시스템으로 경북도지사상을 수상하였다.

이번 행사에서 인탑스에서 스마트 MES구축으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을, 에스피엘에서 알뜰형 MES 및 ERP시스템 고도화로 경북 도지사상을 수상하였고, 원익 QnC에서 PLM 구축으로 구미시장상을 수상하였다. 수상 기업의 우수 사례 발표가 있었고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준비한 스마트 팩토리 특강이 진행되었다. 제품 생산 외에도 서비스에 대한 신규 비즈니스 모델 발굴이 필요하다고 강조 하였다. 기념 사진 촬영 후 참석자 네트워킹을 위한 저녁 식사를 마지막으로 행사는 끝이 났다.

▣ 중소/중견 기업을 지원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는 2014년에 설립되어 4차 산업 혁명시대를 대비하기 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중소/중견 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 내용은 금전적 지원 외에도 아이디어 구체화, 법률, 특허 컨설팅 등이 있다. 이번 지원으로 인해 신기술 도입에 대한 리스크를 줄일 수 있어 많은 도움이 되었다. 2년전에는 기술연구소 핫스타핑 라인 스마트 공장 구축도 지원 해주었다. 현재 한 프로젝트 지원 완료 후 365일 이내에는 지원이 안 되는데 스마트 팩토리 보급 지원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내년에는 이 제한이 풀린다고 하니 매해 지원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다.

18세기에 증기기관과 방적기의 발명에 의해 1차 산업혁명을 일으켰고, 19세기에는 전기동력을 개발하여 자동화에 의한 대량생산 체계를 구축하여 2차 산업혁명을 겪어왔으며, IT정보기술과 산업의 접목으로 이루어진 3차 산업혁명을 경험하였다. 오늘날에는 사이버 물리시스템(Cyber-Physical System)과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의 기술을 융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내는 4차 산업혁명에 직면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모든 것이 연결되고 보다 지능적인 사회”를 구축하는 데에 있다. 빅데이터, 인공지능 로봇, 사물인터넷, 3D 프린팅, 무인자동차, 나노바이오기술 등이 융합하여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파괴적 기술이 중심이 되며 그 속도와 파급력은 빠르고 광범위할 것이다.

우리 회사에서는 대략 3천대의 ROBOT을 보유하고 있고 아주 중요한 자산인데 이번 시스템 도입을 통해 고장없이 오래 사용하여 원가 경쟁력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IoT 기술을 접목한 ROBOT 관리시스템의 주요 기능으로는 예방/예지 보전, 정보 관리, 상태 진단이 있다. 유효성 평가 후 향후 화신포 보전 시스템 연계 및 신규 차종 수평 전개를 진행할 계획이다.

▣ 4차 산업혁명, 기회로 만들어야

4차 산업혁명에도 부작용이 있는데 바로 양극화다. 4차 산업혁명은 효율과 생산성을 비약적으로 높일 수 있는 한편 로봇과 인공지능으로 대체되는 부분은 일자리가 줄어들어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 고용시장은 700만개의 일자리가 없어지고, 200만개가 새로 생겨 결과적으로 500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지는 첨단기술 집약산업이 도래할 것이라고 본다. 하지만 ‘위기가 기회’라는 말처럼 현재 변화하고 있는 시장 상황을 유심히 살펴보고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4차 산업혁명은 우리에게 기회가 될 수도, 혹은 저주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되겠다.





INSIDE 화신

화신 / 화신정공 / 해외법인 - 미국·북경·창주·충청·인도·브라질

HWASHIN NEWS

화신 뉴스

01 소방의날 기념 행사 실시

2018년 11월 9일 '소방의 날' 최운복 차장 경북도지사 표창소방의 날을 맞이하여 실시한 기념행사가 영천소방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 중 총무팀 최운복 차장이 소방안전협의회 조직 및 운영, 화재예방활동 강화에 대한 공로를 인정 받아 경북도지사 표창을 수상하였다.



02 동절기 화재안전활동 강화

2018년 12월 연이은 국내/외 대형 화재발생으로 사전 점검과 예방활동 강화를 통해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실시하였다. 1달간 진행된 이번 강화활동은 포스터 및 현수막, 순회점검 강화 등을 통해 안전의식을 고취하는 계기가 되었다.



03 2018 영천시자원봉사자대회 개최

2018년 12월 6일 영천체육관에서 자원봉사자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 영천시자원봉사자대회'를 개최했다. 지역사회 현장에서 봉사를 실천해 오신 자원봉사자를 격려하고 축하하기 위한 자리로 나눔의 파발마 해단식 및 자원봉사 유공자 표창 등으로 진행되었다.



04 새해맞이 떡국 배식 행사 진행

2019년 1월 3일 시무식을 마친 새해 첫 점심을 경영진이 직접 배식하는 행사를 가졌다. 해마다 실시하는 이번 행사에도 정서진 사장, 김해용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하여 노사가 함께 맛있는 떡국을 나누었다.



01 화신정공 창립기념일 행사

2018년 12월 03일 화신정공 창립 27주년 기념행사가 진행되었다. 개식선언을 시작으로 표창수여, 사장님의 기념사, 사훈제창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포상수여는 장기근속상, 우수사원상, 무재해 포상을 수여하였다. 류경호 상무(장기근속 30년) 외 14명이 장기근속상을, 김상동 과장 외 3명이 우수사원상을 수여받았다. 생산1반, 생산3반과 보전반에서 무재해 달성 수상을 받았다.



미국화신

미국법인 2019년 사업계획 워크샵 실시

미국법인의 주재원 및 현지인 관리자들과 같이 한해의 업무를 마무리하고, 2019년 사업계획을 달성하기 위해 수립한 계획을 발표하고 공유하는 워크샵을 실시하였다. 또한, 작년 한 해 동안의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우수 직원을 시상 하는 자리를 가졌다.



북경화신

취업규칙 개정 설명회 실시

2018년 10월 9일에서 10일까지 북경법인은 취업규칙 개정 설명회를 실시했다. 개정 내용은 상벌제도의 구체적인 금액을 명시하여, 직원들에 대한 보상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하였다. 북경법인은 직원들의 성과 증진과 복지향상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다.



창주화신

비상상황 대비 소방훈련 실시

2018년 12월 18일 전 직원이 참석하여 긴급대피 훈련 및 화재진압 훈련 실시하고, 겨울철 화재가 빈번한 만큼 전 직원의 안전 의식을 고취시켰다.



충청화신

공회(노동조합) 행사 실시

2018년 12월 20일 품질부 주관 품질테스트 실시 후 우수성적자에게 상품을 지급하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사진전을 열어 우수작 선정 후 상품을 지급했다.



인도화신

인디아 화신 PICNIC행사 실시

2018년 12월 30일 인디아 화신에서 첸나이 외각 V.G.P 리조트에서 PICNIC을 실시하였다. 주재원과 현장직 및 사무직 근로자들 약 200명이 참석하였다. 오전에는 사내 부서들끼리 실시한 배구와 크리켓 대회 결승전과 스낵타임을 진행하였고, 오후에는 신나는 마술쇼와 댄스파티, 그리고 시상식이 있었다. PICNIC을 통하여 전직원들이 다같이 윤택을 마무리하며 친목을 도모하는 좋은 시간을 가졌다.



브라질화신

품질5스타 감사

11월에 브라질법인은 품질5스타 감사를 받았다. 브라질법인은 고객사의 평가로 부터 높은 점수(94점)를 획득하여 5스타+등급을 받았다. 브라질법인은 이에 만족하지 않고 완벽한 품질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송년회 행사

브라질법인은 12월 15일, 직원들을 위해 한 해를 마무리하는 행사를 열었다. 직원들이 다 함께 모여 음식을 먹고, 선물증정 행사 등을 하며 송년회를 즐겼다. 행사의 마지막에는 직원들 간의 축구경기가 열렸는데 10월부터 시작된 화신 축구 토너먼트의 결승전이었다.



한걸음 더 불꽃 속으로, 한걸음 더 화신 속으로! 글 사진 화신정공 업무팀 김성준 사원

2019년 대리·주임 승진자 인터뷰

2019년을 맞아 승진하신 화신가족에게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회사의 밝은 미래를 위해 각자 맡은바 직무에서 최선을 다해주신 분들의 노력을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진급 대상자분들의 소감을 들어보면 좋겠지만 대표적으로 '대리 진급자' 임동길 주임, '주임 진급자' 김동현 사원, 김정윤 사원, 박동찬 사원의 진급기념 소감 및 포부에 대해서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정규직 합격 후 어느새 1년!
화신의 인재로 성장하겠습니다”

김동현 사원 사원 ▶ 주임

17년 6월 입사후, 정규직 전환을 바라보며 동기들과 오밀조밀 모여서 인턴과제를 하고, 과제가 끝나고 나면 오늘도 무사히 끝났다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동기들끼리 “오늘도 수고했다”며 술 한잔 기울이던 때가 엇그제 같은데 어느새 정규직 합격 후, 1년이라는 시간이 벌써 지나가고, ‘주임’을 바라보고 있으니 “시간이 참 빠르다.”는 생각이 자연스레 떠오릅니다. 다른분들에 비하면 긴 시간은 아니었지만 그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팀에 들어와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규직 전환 전, 회사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회사의 상하가 분명한 조직체계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두려움을 한 번에 없애주신 분들이 저희 총무팀 팀장 및 팀원 분들입니다.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단순한 상사와 부하직원의 관계를 넘어서, 조언을 구할 수 있고 서로 의지 할 수 있는 사이로까지 발전했습니다. 또한 제가 회사에 빠르게 적응 할 수 있었던 것도 저희 팀 덕분이었습니다.

주임진급은 자동진급이라서 업무실적과는 크게 상관이 없지만 회사에서 사원으로서 맡은 일에 대해 최선을 다한 것에 대한 포상으로 진급을 시켜주었다고 생각하고, 그에 감사하며 지금보다 더 열심히 노력하여 맡은 분야에 대한 숙련성을 높여 회사의 성장에 더욱 이바지할 수 있는 인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취적인 자세로 업무에 임하며
회사 발전에 기여하는 직원이 되겠습니다”

김정윤 사원 사원 ▶ 주임

먼저, 입사 15개월만에 진급할 수 있도록 큰 도움주신 개발팀장님과 팀원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개발팀장님과 팀원분들 없었으면 회사 생활 어떻게 했을까...하는 걱정이 앞섭니다. 그리고, 같은 팀에 발령받아서 인턴부터 주임까지 함께 동고동락한 박동찬 주임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회사에서 주임으로 진급시켜 준 것은 맡은 바 업무에 있어서 더욱 더 큰 성과를 내라는 뜻으로 느껴집니다.

주임이라는 직급에 상응하도록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 보다 효율적이고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매진할 것 입니다. 진취적인 자세로 업무를 대하고, 모르는 것이 있으면 당당하게 질의하고 해답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할 것 입니다.

앞으로 시작될 2019년도 개발팀의 성과와 회사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직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툴렀던 사원에서 성장하는 주임으로!
더 잘하는 박동찬 주임이 되겠습니다”

박동찬 사원 사원 ▶ 주임

17년 6월 입사후 화신으로 들어와, 청솔아파트에서 에어컨도 없이 무더운 여름을 보내고, 꿈에도 그리던 정식 사원이 된것이 엇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이 훌쩍 지나 주임진급이라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2018년의 끝자락에서 지난 한해를 돌아보니, 말 그대로 ‘정신없이’ 한해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인터넷에서 봤던 글인데, ‘사원은 1을 알려주면 1을 간신히 해내는 직원’이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저의 사원생활은 그 1을 해내기 위해 참 많은 사람을 괴롭혔던 것 같습니다. 때문에 당장 내년부터 젊어지게 될 주임이라는 직급이 너무나도 무겁게 느껴지는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하지만 피할수없으면 즐겨라 라는 말이 있듯이, 마냥 물려서지마는 않으려고 합니다. 화신정공 개발팀의 일원으로서 지난 한해, 팀장님과 팀원분들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제가 실수를 저지르거나, 업무가 잘 진행되지않아 답답해하고 있을때 늘 기다려주시고 괜찮다 다독여주신 팀장님, 그리고 그럴때마다 해결책을 제시해주며, 하나하나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팀원분들에게 보답하기위해서 내년에는 더욱 성장한 모습을 보여드려야겠다고 결심하는 요즈음입니다. 더 잘하는 박동찬 주임이 되기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리’라는 직급에 맞게
일신우일신 하는 자세로 노력 하겠습니다”

임동길 주임 주임 ▶ 대리

안녕하십니까? 화신정공 품질관리팀 임동길대리입니다. 2014년 입사 후, 2016년도 주임으로 진급... 그리고 3년이란 시간이 지나 대리 진급을 하게 되었는데, 제가 벌써 대리가 되었다니... 직급이 많이 어색하기도 합니다. 입사한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어느새 후배들이 생기고 가끔 제가 누군가를 가르치고 있는 걸 보면 세월이 참 빠르다는 생각도 듭니다.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다양한 차종, ITEM들을 담당하며 부딪힌 문제들에 대해 고민하는 동안 저도 모르게 많이 배우고 성장한 것 같습니다. 한편으론, 제가 신입사원 때 바라보던 선배 ‘대리’들의 업무역량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아직 대리 직급을 가지기엔 부족한 점이 많지 않나?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본인의 능력이 뛰어나서 진급을 시켜주는 게 아닌, 앞으로 부족한 점을 보완하여 더욱 성장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승진자 명단이 발표된 후 축하연락을 주신 여러 선배님들 후배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일신우일신 하는 자세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19년도에는 화신 가족 모두의 가정과 직장생활에 좋은 일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물 속에서 느끼는 무한자유 스쿠버다이빙

글 사진 기술영업팀 조창현 사원

지구의 70%를 차지하는 바다는 아직도 미지의 세계입니다.
사람이 바다를 탐험하기 위해서는 물속에서도 숨을 쉴 수 있게 하는 기구가 필요한데
1943년 수중자가호흡기 스쿠버(SCUBA)가 개발된 이후 스쿠버다이빙은 수중스포츠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Q 안녕하세요 간략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기술영업팀 조창현입니다.

Q 조창현 사원에게 취미 생활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제가 인턴기간을 지낼 당시에 저희 영업팀 권태윤차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으셨어요. 회사생활을 하다 보면 자존감이 떨어지는 상황이 많은데 '회사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취미생활이다' 라고요. 저도 가끔은 영업팀에 있으면서 자존감이 떨어지는 상황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럴 때마다 취미생활을 통해서 일에 더 집중할 수 있게 해주는 것 같아요.

Q 좋은 말씀이시네요. 그럼 조창현사원님은 어떤 취미를 가지고 계시나요?

저는 스쿠버다이빙을 하고 있어요. 여름 휴가때 처음으로 스쿠버다이빙 자격증을 딴 뒤, 동호회에 가입해서 바다 혹은 풀장에 가서 취미생활을 즐기고 있습니다.

Q 스쿠버다이빙이라 정말 맛있는 취미를 갖고 계시네요.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으신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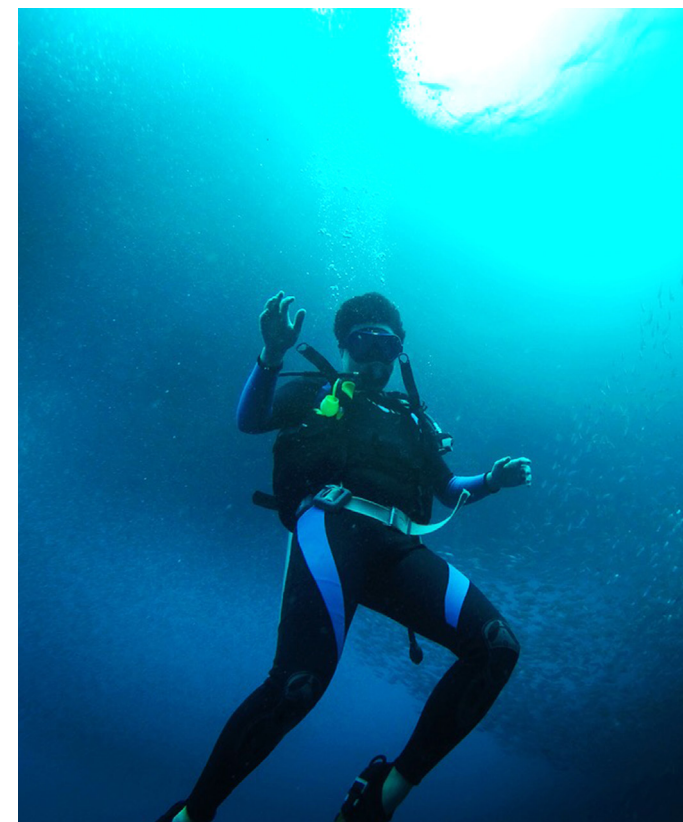
스쿠버다이빙은 힘으로 하는게 아니라 부력으로 하는 레저입니다. 물 속에는 중력이 없기 때문에 우주를 떠다니듯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어요. 물속에서 처음 중성부력이라는 것을 시도해보고 단지 호흡만으로 물에 제자리에 떠있는 제 모습을 사진으로 남겼는데 지금도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거대한 정어리떼들이 한몸처럼 몰려다니면서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장관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Q 스쿠버다이빙 장소로 추천하는 곳은 어디인가요?

스쿠버다이빙이 먼 곳에만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의외로 가까운 데에서 즐길 수 있는 곳이 많아요. 제가 가입한 동호회 중에는 매주 주말 대구 두류 다이빙풀장에서 진행하고요. 가까운 데에는 영덕, 부산 이렇게 가끔 바다로 나가기도 한답니다. 저는 경기도 가평에 있는 K26을 추천하는데, K26은 아시아에서 가장 깊게 잠수할 수 있는 풀장이기도 해요. 물론 시간적 여유가 되시는 분은 비교적 비용이 저렴한 필리핀으로 가시는 것도 좋은 선택인 것 같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앞으로 건강한 취미생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스쿠버 다이빙 안전 수칙

- 1 충분한 준비 운동으로 최적의 신체 상태를 유지한다.
- 2 잠수 전, 환경(기상/해류)과 장비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한다.
- 3 혼자 다이빙하지 않고, 짝과 함께 수시로 수심과 공기량을 확인한다.
- 4 처음 가는 곳에서는 경험 있는 현지 안내자의 인솔을 받는다.
- 5 장비에 결함이 있거나 몸 상태가 급격히 저하되면, 즉시 잠수를 포기한다.
- 6 수면으로 나오기 전 수심 5m에서 약 4~6분간 안전정지 후 물 밖으로 나온다.
- 7 밖으로 나온 뒤 잠수자의 상태 및 장비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출처_네이버 지식백과

뚝뚝뚝 겨울여행

글 사진 제품연구팀 이지선 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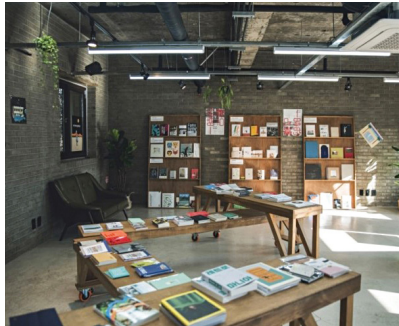
코 끝 짙한 찬바람이 불어도, 미세먼지가 덮쳐도 방구석 1열이 지겹다면!
외투 주머니엔 핫팩 하나 넣고 목엔 머플러 단단히 두르고, 집 밖으로 나가볼까요?
구석구석 찾아보면 갈 데 많고, 볼 것 많고, 먹을 것 많은 대구!
뚝뚝뚝 신나는 대구의 보물지도, 두 번째를 공개합니다.

☐ 대구의 중심속으로 떠나요! ☒ 젊고 활기찬 대구를 만나요! ☐ 아름다운 대구의 자연을 느껴요!

| 젊고 활기찬 대구를 만나요!

예술도시 대구를
느낄 수 있는 공간
수창청춘맨손

주소 대구광역시 중구 달성로26길 32
시간 10시 - 18시
요금 무료



수창청춘맨손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산업단지 및 폐산업 단지 시설 문화재생사업으로 흥가 같던 구. KT&G 직원 사택을 개조하여 젊은 예술인들을 위한 공간으로 재활용되고 있는 공간입니다. 수창청춘맨손에서는 작품 감상뿐만 아니라 작가의 작품을 구매할 수도 있으며, 전시공간이 특별하고 이색적이어서 친구, 연인들과 방문하여 인생샷 찍기 좋은 곳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오하나키친』

“대구 최초의 재패니즈 하와이안 푸드 전문점으로 아끼자기한 데이트 코스 맛집”



주소 대구광역시 북구 고성동3가 143 **영업시간** 12:00 - 00:00 **대표메뉴** 덮밥류

볼거리 먹을거리 가득한
전국 3대 전통시장
서문시장

주소 대구광역시 중구 큰장로26길 45



서문시장은 조선 중기부터 형성되어 평양장, 강경장과 함께 전국 3대 장터 중 한 곳이며, 대구경북 최대의 전통시장입니다. 19시 이후부터는 전국 최대 규모의 야시장이 열립니다. 현재 5천여 개의 점포와 1천여 개의 노점상에서 3만 명의 상인들이 대구 여행의 '맛'을 책임지고 있는 관광명소입니다.

『삼미 갈비찜』 “간장을 달일 때, 고기를 재울 때, 고기를 조리할 때 마늘이 3번 들어가는 건강한 갈비찜”



주소 대구 중구 큰장로28길 25 **영업시간** 11:00 - 20:00 **대표메뉴** 마늘돼지갈비찜

대한민국 근현대사 스토리가
가득 모여 있는 역사적인 공간
근대문화골목 (2코스)

주소 대구시 중구 동산동(청라언덕)



대구 근대문화골목은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된 여행지로 오랜 역사를 자랑하며, 대한민국 근대문화의 발자취를 주제로 한 길입니다. 1.64km의 비교적 짧은 코스이지만 볼거리가 많아 다 돌아보려면 2시간 정도 걸립니다. 예쁜 디자인의 팸플릿과 스탬프투어 기획을 통한 선물 제공 및 대구 여행 관련 여러 가지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구근대골목단팥빵』 “국산 팥과 맛있는 크림이 듬뿍 들어간 대구 동성로 약전골목의 소문난 단팥빵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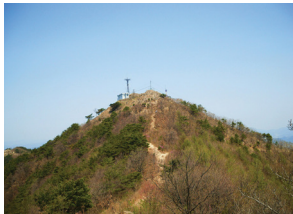


주소 대구 중구 동성로3가 53-4 **영업시간** 08:00 - 22:00 **대표메뉴** 녹차크림단팥빵

대구 도심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앞산공원

주소 대구 남구 앞산순환로 574-116



대구 앞산 공원에는 대구 시민들의 여가공간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다양한 산책로가 있습니다.

각각 2km에서 4km에 이르기 때문에 취향과 체력에 따라 산책로를 선택할 수 있어 좋습니다. 앞산공원 전망대로 올라가면 눈앞에 펼쳐지는 대구시내의 경치를 한눈에 볼 수 있으며, 대구의 야경명소로도 유명한 곳으로 저녁에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서 상쾌한 바람과 탁 트인 야경을 즐기는 것을 추천합니다.

『조조칼국수』 “쌀쌀할 때 더욱 땡기는 맛! 앞으로 더욱 자주 찾게 될 맛집”



주소 대구 남구 현충로15길 13-1 **영업시간** 11:30 - 22:00 **대표메뉴** 동족칼국수

『앞산주택』 “아담한 정원과, 모던과 내추럴 콘셉트를 잘 조화시켜 꾸민 분위기 좋은 맛집”



주소 대구 남구 현충로1길 16 **영업시간** 11:00 - 22:00 **대표메뉴** 부채살스테이크, 파스타

『오르다카페』 “대구의 전망을 한눈에 내려다 볼수 있는 분위기 좋은 루프탑 카페”



주소 대구 남구 안지랑로 11 **영업시간** 11:30 - 23:00

故김광석을 기리고
그의 음악을 좋아하는
작가들의 창작길,

김광석 다시 그리기 길

주소 대구광역시 중구 달구벌대로 22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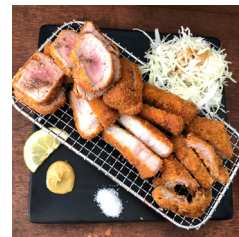
“제 노래가 힘겨운 삶 속에서 희망을 찾으려는 이들에게 비상구가 되었으면 해요.” – 1995년 샘터 9월호 김광석 인터뷰 중에서 – 김광석 다시 그리기 길은 방천시장 문전성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제작된 **故 김광석**이 살았던 대봉동 방천시장 인근 골목에 김광석의 삶과 음악을 테마로 조성한 벽화거리입니다. 350m의 작은 골목엔 김광석의 노래와 그림이 그를 추억하는 사람들로 주말엔 특히 5,000명 이상의 관광객들이 몰려오는 대구 대표 명소입니다.

『코리아경양식』 “눈과 입, 마음까지 움직일 수 있는 감각적인 플레이팅이 돋보이는 맛집”



주소 대구 중구 달구벌대로 2232-15 **영업시간** 12:00 - 22:00 **대표메뉴** 돈가스

『대쿠이』 “소박한 일본식 가정집 느낌이 나는 대봉동 색다른 돈가스 맛집”



주소 대구 중구 달구벌대로446길 28 **영업시간** 11:30 - 21:00 **대표메뉴** 쿠이 모듬 카츠

『가족족발』 “많은 사람이 찾는 곳에는 그만한 이유가 다 있다! 유명한 족발 맛집”



주소 대구광역시 중구 달구벌대로446길 7-16 **영업시간** 15:00 - 24:00 **대표메뉴** 가족족발

화신 두 거인(巨人)의 아름다운 이별

글 사진 프레스기술팀 김희진 대리



프레스기술팀 백영기 차장

프레스기술팀 김희진 대리

생산2부 프레스2반 석학수 소장

30여년간 오로지 화신의 발전을 위해 외길만 걸어오시다 2018년 올해 정년퇴직을 앞두신 프레스기술팀 백영기 차장(1985년 입사), 생산2부 프레스2반 석학수 소장(1986년 입사)을 만나서 인터뷰를 해보았습니다.

Q. 화신에 입사하신 후 현재까지의 발자취에 대해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백영기 차장 1985년 3월에 입사하여 올해까지 33년 근무하였습니다. 화신이 대구 북구 태전동에 있을 때, 저는 그 바로 옆 회사에서 근무를 하다가 철공 일을 하고 싶어서 화신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입사하고 현장에서 근무하다가 2006년 해외공장 가동으로 기술지원이라는 명목 아래 지금의 프레스기술팀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석학수 소장 저는 백차장님보다 약 1년 뒤인 1986년 9월에 이곳 화신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당시, 저는 대구에서 호황이었던 섬유 회사에 종사하고 있었으며, 그곳에서 3년 정도 근무하다가 자동차 산업이 좀 더 비전이 있다 판단하여 당시 금형반 반장이셨던 이범신 반장님 소개로 화신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3~4년간 반장님께 금형에 대해 많이 배울 수 있었어요. 저 같은 경우, 화신에 근무하면서도 근무지가 여러 번 바뀌었는데 처음에 대구 북구 태전동으로 입사하였고, 대구 성서쪽 금형 제작공장에 몇 년 있다가 지금의 화신 언하동 공장 그리고 현재 근무하고 있는 봉동 공장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입사 후 1년 정도 프레스 반에서 근무하다가 그 뒤로 지금까지 쪽 금형반에 있었던 것 같아요.

Q. 두 분 모두 30년 넘게 화신에 몸 담아 성실히 근무하셨습니다. 정년퇴직을 앞두고 있는데 소감은 어떠신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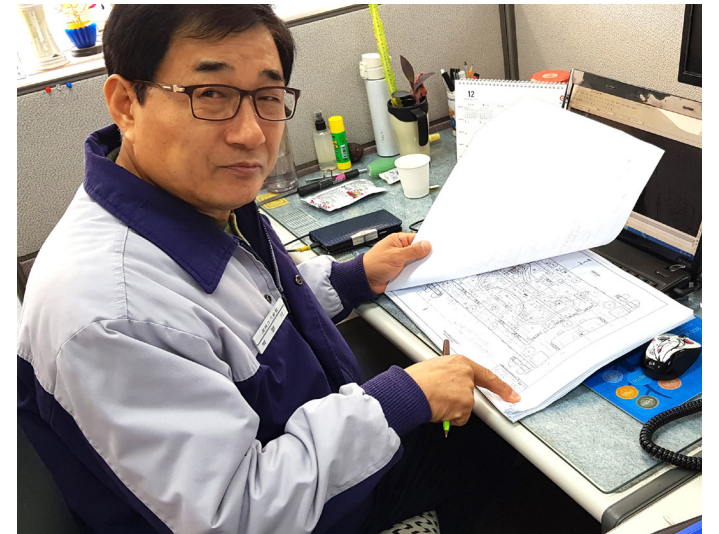
백 이십 대 후반 젊은 시절, 화신에 입사하여 현장 조장, 반장분들께 잔소리 들으며 일 배운 게 엇그제 같은데, 어느새 자녀들 결혼까지 다 시키고 화신과 이별을 앞두고 있으니 섭섭하기도 하고, 기분이 이상하네요. 이제 2019년이 되면 나이가 62세가 되는데, 계획을 잘 세워 남은 인생도 보람되게 보내고 싶네요.

석 설레기도 하고 한편으로 뿌듯하기도 합니다. 화신에서 이렇게 32년간 근무하고 무사히 끝맺음할 수 있었던 것은, 제가 잘했기 때문이 아닌 회사가 지금까지 존재하였고 동료 선배들이 저를 잘 이끌어 주었기 때문이라 생각해요. 감사한 마음이 큼니다.

Q. 담당하셨던 업무 중에 가장 기억에 남거나 보람되었던 업무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백 해외법인 신공장 설립 후, 해외 각 법인의 현지 직원들 교육했을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낀 것 같네요. 그 당시, 우리 화신도 이제 해외공장(중국, 인도, 미국)이 생겼다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었으며 그것은 회사, 국가에 대한 자부심이었지요. 그 경험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경험이에요. 현재 화신의 각 해외법인들은, 그때 직원들의 피땀 흘리는 노력으로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과거 IMF 시절 미국 공장 설립 시, 당시 사장이셨던 서창명 전 사장님께서 "일본 사람들 지독하게 일하는데 우리도 죽기 살기로 하면 일본을 따라잡을 수 있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정말 그 당시 회사 전 직원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열과 성을 다하여 일했는데 그때가 생각나네요.

석 제가 태전동에 있을 때 현장 작업 환경을 개선하여 1996년에 공로상(산재예방활동)을 수상한 경험이 가장 기억나네요. 모두 잘 아시겠지만, 프레스 라인은 매우 위험한 작업 현장입니다. 한순간의 실수로 돌이킬 수 없을 만큼 큰 사고가 나지요. 당시 프레스 라인은 전부 수동 작업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과 다르게 안전사고도 자주 발생하였고 현장 환경이 좋은 편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개선을 하기 위해 고민 끝에 프레스에서 생산된 제품을 수동에서 자동 취출할 수 있게끔 만들어서 작업자가 직접 손으로 프레스 안에 손을 넣지 않고 제품을 취출할 수 있게 하였으며, 덕분에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어요. 지금 우리 현장에 가보면 대형 프레스는 모두 자동화 장치가 설치되어 로봇이 제품을 투입 및 취출할 수 있게 되어있으며, 소형 프레스는 라인마다 센서가 다 설치되어 사람 손을 넣으면 기계가 자동으로 멈추게끔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게 되어있지요.





Q. 근무하시면서 회사/부서에 좋았던 점과 아쉬웠던 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백 30년 넘게 제가 한곳에 머무를 수 있게, 회사가 지금까지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좋은 점이라고 꼽을 수 있겠네요. 정년퇴직하기 위해서는 회사가 있어야 가능하지요. 앞으로도 제가 퇴직한 이후 10년 20년 쪽 회사가 성장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쉬운 점은 딱 하나 있는데, 현재 담당하고 있는 업무 노하우와 기술을 우리 후배들에게 많이 전달하지 못하고 마무리를 하게 되어 굉장히 아쉽습니다.

석 언제인지 기억이 정확히 나진 않는데 회사 전 직원 모두 하계 휴무 때 대전에 있는 엑스포, 독립기념관으로 단체 관광을 한 적이 있어요. 부동산반으로 갔었는데 그때가 생각나네요. 아쉬운 점은 아직도 몸과 정신이 건강하고 충분히 일을 할 수 있지만 이렇게 떠나야 하니 마음이 무겁습니다.

Q. 평소 휴일때, 하고 계신 취미 활동이 있으신지요?

백 얼마 전까지 낚시, 등산을 즐겼고요. 요즘은 자전거 타면서 영천, 대구 근교까지 다니곤 합니다. 그리고 소소하게 농장도 가꾸고 있어요. 나이를 먹다 보니 밭일이 즐거워지네요.

석 평소 사우나에 자주 가고요, 자전거랑 등산을 즐겨합니다. 자전거로 가끔 출퇴근도 하고 있으며, 산은 한 달에 적어도 2~3번은 가는 것 같네요. 아내랑 같이 산 공기를 마시면 기분이 매우 좋습니다.

Q. 회사 은퇴하신 후 계획이 궁금합니다.

백 기회가 된다면 공부를 좀 더 하고 싶습니다.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도전해보아지요. 그리고 아직 몸이 건강하니 일을 더 하고 싶습니다. 생각하고 있는 자리가 있는데 아직 결정을 못 했습니다. 조만간 좋은 소식이 있길 바랄 뿐입니다.



석 그동안 일하느라 아내와 제대로 여행을 많이 못 다녀 봤어요. 한동안은 집사람과 좋은 시간을 보내고 싶네요. 특히 캠핑카를 구입하여 부부 동반 전국 여행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60대 후반까지는 일을 더 할 생각이예요.

Q. 마지막으로 후배 직원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나 조언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백 항상 선배들이 걸어온 길을 생각하면서, '회사가 있어야 나도 있다'라는 각오로 주어진 업무에 최선을 다 해주시길 바랍니다. 요즘 회사가 어려움에 직면한 직원들이 하나로 똘똘 뭉쳐서 잘 이겨냈으면 좋겠네요. 이때까지 잘해왔으니 앞으로도 승승장구하리라 믿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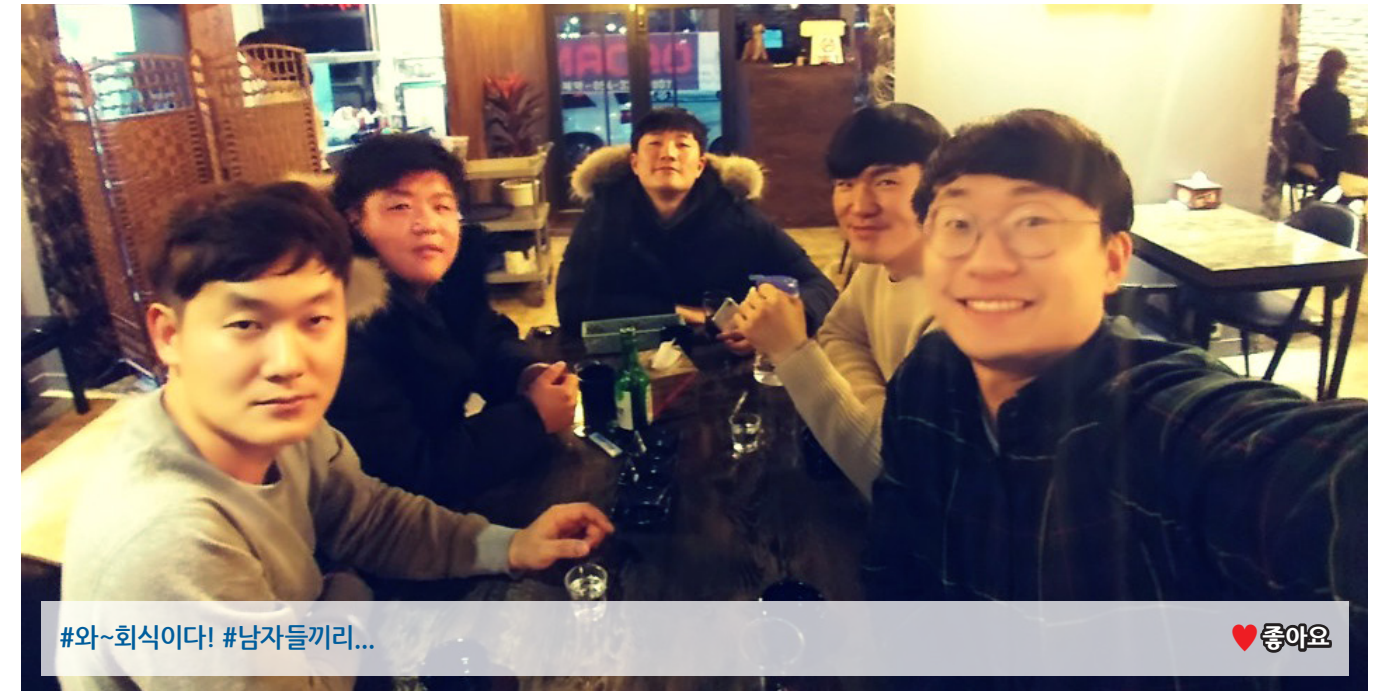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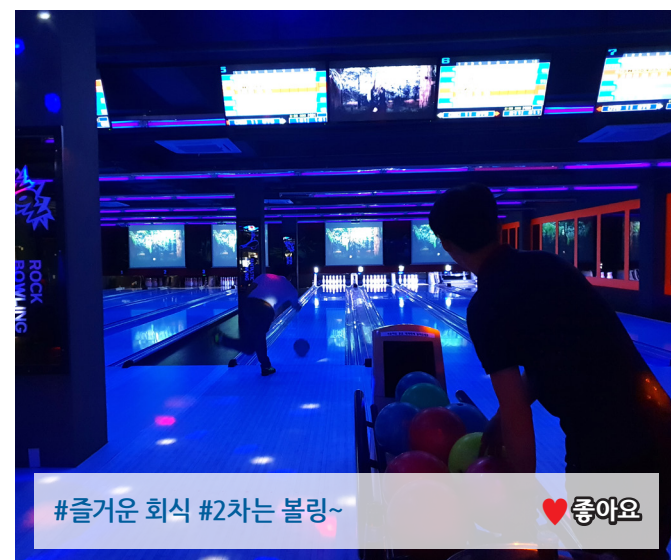
석 어떤 자리에 있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화신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애사심을 갖고 하나라도 회사를 발전할 수 있게 업무에 임하면 지금보다 화신이 더 발전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들 안전사고 항상 유념하세요. 감사합니다.

“

30여 년 동안, 화신이 자신의 전부였고 추억이었으며 인생이었던 두 분!
때론 이곳을 떠나고 싶은 마음도 굴뚝 같을 때도 있었지만,
막상 떠나려고 하니 섭섭하고 아쉽기도 하며 한편으로는 설레는 마음도 든다고 합니다.
'정년 후 더 뜨겁게 살아라'라는 말처럼, 남은 제2의 인생은 더욱 뜨겁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간의 노고를 위로하며 영예로운 정년퇴직이 두 거인(巨人)의 새 인생 출발점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두 분의 정년퇴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







2018 영천시자원봉사자대회를 마치며...

글 사진 총무팀 유경일 대리



지난 12월 6일 영천체육관에서 자원봉사자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 영천시자원봉사자대회'가 개최되었다. 행사 시작 전부터 리허설을 준비하는 꽤나 많은 분들이 먼저 와 계셨다. 그러나 체육관을 채우기에는 매우 모자랐고 이 넓은 체육관에 이렇게나 많은 테이블에 사람이 다 찰까? 라는 의문이 들었다. 공식의 우려는 기우였고 체육관을 꽉 채운 자원봉사자들의 참여율이 난방도 제대로 되지 않는 높은 체육관을 후끈 달아오르게 만들었다. 각자의 자부심과 뿌듯함으로 밝은 참여자들의 모습을 보니 마음까지 훈훈해졌다.

자원봉사자대회는 한 해를 돌아보며 지난 1년 동안 지역사회 현장에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곳에 마치 내 일처럼 봉사를 실천해 오신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하고 축하하기 위한 자리다. 지역의 대표기업으로써 다양한 방법으로 매년 봉사를 이어나가고 있는 ㈜화신 역시 이번 행사에 빠질 수가 없다. 좋은 자리만큼 양지거나 음식거나 물심양면으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인 자원봉사자에게 감사를 표하는 큰 행사다.

행사는 크게 2부로 나뉘었다. 1년간 봉사자들의 활동 모습을 담은 자원봉사활동 영상 시청, 지역봉사를 물결처럼 이어나간 나눔의 파발마해단식, 특별히 더 기여하고 공로를 인정 받은 우수한 자원봉사자를 위한 자원봉사 유공자 표창 등 1부 기념식과 2부 축하공연 화합한마당 순으로 진행되었고 박수갈채와 함께 막을 내렸다.



전반적인 경기가 좋지 않은데다 그 타격을 고스란히 받는 자영업자, 그리고 그 자영업자가 많은 지역 특성상 이번 연도 기부액은 역대 최저로 시작하였다. 목표금액 5억원을 훨씬 못 미친 채 12월 중순까지도 사랑의 온도탑이 세워지지 않던 것이 기억난다. 하지만 십시일반으로 조금씩 모은 기부금은 지금까지 6억이상 모여 목표금액을 상회하였으며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소외계층까지 혜택이 갈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의 풀뿌리 봉사단체와 소액기부자들의 힘이 이런 곳에서 나온다.

개인적으로도 매년 연탄 기부를 하고 있다. 입사 이후 친구들과 매월 5천원, 1만원 그렇게 모아서 풍부한 노동력(?)을 활용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연탄기부를 시작했다. 돈으로는 크게 하지 못하니 몸으로라도 크게 하기 위해 선택했다. 그렇게 해마다 기부하던게 쌓여 지금까지 900여만원이 쌓였고 내년에는 누적기부액이 천만원을 돌파할 것이다. 나눔이라는 것이 그렇게 거창하거나 부담스러운 일이 아니다. 매월 몇 천원, 몇 만원이라도 습관을 들이고 그런 문화를 형성하는 것이 우리 사회를 더 따뜻하고 건강하게 하는 것이라 믿는다. 회사에서도 손쉽게 할 수 있는 소액기부인 끝내기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천원단위 절사로 어떨 때는 9천원대, 어떨 때는 몇 백원이 공제되기도 한다. 조금 더 여유가 생기면 한다는 생각은 우리 삶에 여유를 주지 않는다. 소액기부문화를 함께 하는 것도 작은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 생각한다. 흔히 보내는 기프트콘 커피 한잔처럼 매월 소액기부를 신청해 보는 건 어떨까?





내일의 기술을 오늘 만나다! TESLA 모델S 시승기

글 사진 선행품질팀 이상운 주임

자율주행성능 기술력의 현 위치는?

AI 성능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2016년 최고의 EVENT 중 하나였던 '알파고 VS 이세돌'의 바둑대국을 기억할 것이다. Google Deep Mind에서 개발한 인공지능 Alphago의 바둑실력 앞에 이세돌 9단은 잇따라 패배하였고, 전세계는 '이제 인간은 컴퓨터를 이길 수 없다'는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그렇게 모두가 알파고의 완승을 점치던 벼랑 끝 상황에서 이세돌 기사의 침착한 한 수에 의해 알파고는 바둑 전문가들도 이해하지 못할 수들을 던지다 끝내 항복 메시지를 띄웠다. 그 값진 1승은 아직 인간의 무한한 가능성과 함께 인공지능도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알리는 신호탄이 되었다. 그 때 필자도 화면 너머로 Google 개발진들이 이세돌에게 '알파고한테 좋은 학습의 기회를 줘서 고맙다'는 인터뷰를 보며 생전에 없던 바둑에 대한 관심이 생겼고, 한국인이 해냈다는 애국심마저 들었던 기억이 난다.

대국을 둘 때마다 학습하며 강해진다는 인공지능에 대한 두려움. 그런 인공지능에 에러를 불러일으키는 변수. 한줄기 희망과도 같은 인간의 능력. 현재 자동차 시장에도 이와 비슷한 화제이자 앞으로 펼쳐질 강력한 경쟁구도 중 하나인 '자가학습 자율주행시스템'에 투자해 보며 현재 이 기술력은 어느 위치까지 왔고 어느 정도의 가능성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TESLA 모델S 직접 시승해

20기 박철형, 이상운, 노현대, 최영욱 주임은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위치한 TESLA 매장에 방문하였다. 화신에서는 TESLA 전기차의 신형시리즈인 모델S에 BRAKE PEDAL을 납품하고 있었고, 그러한 연유 때문에 좀 더 순조롭게 직원분들과 얘기할 수 있었다. 앞에 시승 예약했던 팀이 취소하는 바람에 운 좋게 모델S에 바로 시승해볼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본래라면 사전예약을 해야 가능하다.)

자율주행 시스템을 경험해 볼 수 있다는 설렘과 혹여나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을 안고 동기들과 함께 상해보험 계약서에 사인 후 탑승하였다. TESLA 직원도 조수석에 탑승 후 안내에 따라 정해진 구간에서 시내주행을 하며 여러 기능들에 대해 설명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차 안 높이가 생각보다 낮아 뒷좌석에 앉은 필자는 허리를 펴기 조금 불편하였다. 전체적인 디자인이나 승차감 가속/제동 능력 등은 나쁘지 않았으나, 차안 마감재가 조금 원가를 많이 절감하여 만든 것 같았고, 조명등이 아주 작은 똑딱이 버튼으로 되어있어 모델S의 가격대에 비해 다소 귀여웠던 것 같았다.

제한속도 설정 기능의 경우, '설정해 놓은 속도 이상으로 속력이 올라가지 않도록 셋팅하여 안정성에 우선을 두고 있다'고 설명을 들었지만 운전자가 잠을 자도 운행이 가능할 단계가 되기 전까지는 딱히 그 기능을 사용할 거 같지 않았다.

긴장과 흥분의 오토파일럿 모드

복잡한 구간을 지나 큰 대로로 들어선 뒤, 화면을 통해 오토파일럿 모드로 전환하였고 안내 직원분의 '이제 핸들을 놓아 보세요' 라는 말은 안에 타고 있던 모두를 긴장 시켰다.

박철형 주임이 조심스럽게 운전대에서 손을 떼었고, 뒷자리에 앉아있던 우리들은 너나 할 것 없이 핸드폰으로 열심히 촬영했다. 악셀을 더 밟더라도 제한속도 셋팅 값인 80km/h에 맞춰 일정한 속도를 유지하였고, 곡선도로에서도 핸들이 별다른 조작없이 움직이며 화면의 표시선에 맞추어달리는 것을 보고 우리들은 큰 리액션을 아끼지 않았다. (오~ 대박)

차선 변경도 가능하였지만 앞 뒤 간격을 안전 설정단계에 따라 최소 10m 이상을 확보하도록 되어있어, 노상 발생하는 끼어들기 같은 수준은 아직 기대할 수 없었다.

그 밖에도 도로상황이나 방지턱 높이에 따라 차체높이가 자동으로 조절되는 점, 많이 달리는 구간일수록 학습을 통해 더 완벽한 주행이 가능해진다는 설명을 들으면서 운전대에 굳이 손을 올리지 않고 다니는 미래의 도로상황을 상상해 볼 수 있었다.

물론 테슬라의 경우 최근 미국에서 이슈로 나온 자율주행관련 사고문제와 같은 민감한 부분과 자율주행 레벨3등급에 비해 국내에서 승인된 안전 단계는 아직 1단계에 불과하여 순항제어, 자동제동 정도 밖에 허가가 나지 않은 상황들이 현재단계에서의 한계점으로 보여졌다.



자율주행 등급 레벨이란

여기서 잠깐! 자율주행 등급은 레벨0~5까지 있으며 레벨0은 자율주행 기술이 아예 없는 자동차를 뜻하며, 레벨1(특정기능)은 1개의 자율주행 기술이 적용된 자동차를 뜻한다.

레벨2(조합기능)	'종방향 기술'과 '횡방향 기술'이 각각 최소 1개 이상이 적용된 것
레벨3(조건부 자율)	앞, 뒤, 좌, 우 모두 스스로 움직일 수 있지만 완전하지 않아, 운전자가 운전석에 앉아 앞을 보며 비상시 직접 운전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 (현재 테슬라 모델S의 단계)
레벨4(고도자율)	사람이 전혀 운전을 하지 않는 진정한 무인자동차. 스티어링 휠이 아예 없는 것으로 알려진 '구글카'가 현재로서는 가장 적극적으로 시민들 앞에 나서고 있다. 일각에서는 애플이 극비리에 준비중인 '애플카'도 레벨4 수준의 자율주행 기능을 갖추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확한 시기를 예측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어렵지만, 일반적으로 2030년 이후에 레벨4 자율주행 차가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레벨5(완전자율)	더 이상 운전자가 필요하지 않게 되어 운전자라는 개념이 없어지는 수준으로 전문가들의 예측으로는 2040년 상용화가 예상된다고 한다.

현재 네이버 자율주행기술이 레벨3 수준으로 가장 앞서가고 있고 레벨 4까지는 1년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견하고 있으며, 현대모비스에서도 레벨2 고속도로 주행지원기술(HDA2)을 확보해 2019년 양산 준비 중이고 2022년 레벨3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한다.

AI기술로 한걸음 더

모델 S를 시승해보고 나니 현재 자율주행 성능의 기술력을 알 수 있었고, 비용적 측면이나 끼어들기, 안전거리 기준 등의 문제를 보완한다면 양산/보급 하기까지 그다지 멀지 않았음을 느꼈다. 급속하게 발전해가고 있는 자동차 AI산업이 앞으로 더 발전해 인류의 윤택한 삶에 보탬이 되기를 바래본다.

아직 경험해 보지 못한 독자들이 있다면 모터쇼라던가 매장방문 예약을 통해 현 시대의 기술력을 직접 느껴 보며 '내가 이 시대를 살고 있구나' 하는 행복감을 느껴 보길 추천한다.



온다! 차량공유의 시대

글 자료 글로벌기획팀 최영욱 주임



작년 12월, 차량 공유 서비스인 카카오키퍼에 대한 택시업계의 반발이 사회적 이슈가 됐다. 카풀로 생존권 위협을 우려한 한 택시 기사가 분신을 했고, 택시 기사들의 대대적 카풀 반대 시위가 일어났다. 한편 이미 세계적으로 모빌리티 산업이 혁신을 맞이하고, 자율주행차 도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만 이대로 머물 수는 없다는 의견도 대중적 힘을 얻고 있다.

차량공유가 가져올 변화

차량공유 산업은 피할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인 것일까, 아니면 근로자의 생존권을 없애는 일시적인 유행인 것일까? 우리에게 공유경제는 아직 체감하기에는 생소한 단어다. 소유의 효용이 훨씬 더 크다고 믿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최고급 외제차를 소유하고, 부촌의 고가 아파트로 귀가할 때 느끼는 뿌듯함이 여전히 행복이라 믿는다. 아직까지 차를 나눠 타고 집을 공유한다는 것은 어색하다. 하지만 국내에서도 숙박공유서비스인 에어비앤비(Air BnB), 카셰어링 서비스인 쏘카 등의 사용자가 증가하면서 공유경제에 대한 인식이 조금씩 높아가고 있는 추세다.

차량공유 시장이 2030년엔 300조원 이상으로 성장할 것란 전망이 나온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자동차 소비패턴이 변화하고 자율주행차량 보급이 가시화하면서 완성차 업체들은 차량공유 서비스를 활용한 다양한 수익모델을 고안하고 있다. 차량 공유 시장은 카풀 서비스로 알려진 '라이드셰어링' 시장과 차

량 단기 렌탈 서비스로 대표되는 '카셰어링' 시장으로 구분되는데 국내는 '라이드셰어링'에 대한 제약으로 '카셰어링' 시장만이 성장하고 있는 모습이다. 국내 카셰어링 시장 규모는 2011년 6억원에서 2016년 1,000억원으로 성장했으며 2020년에는 5,000억 원 규모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상태다. 또 카셰어링 차량 수는 2012년 400대에서 2016년 1만3000대로 증가했고, 이용자 수도 같은 기간 7만명에서 470만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라이드셰어링은 업체로는 카카오키퍼가 대표적이고, 카셰어링은 쏘카가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해외로 눈을 돌리면 여전히 한국같이 규제가 풀리지 않은 곳도 많다. 하지만, 점차 라이드셰어링에 대한 인식전환이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고, 규제의 틈새를 파고든 토착형 서비스들이 등장하고 있어 세계적으로 서비스 보편화가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글로벌 플랫폼의 전략적 연계, 자율주행차와의 접목 등은 결국 각국이 라이드셰어링을 수용할 수 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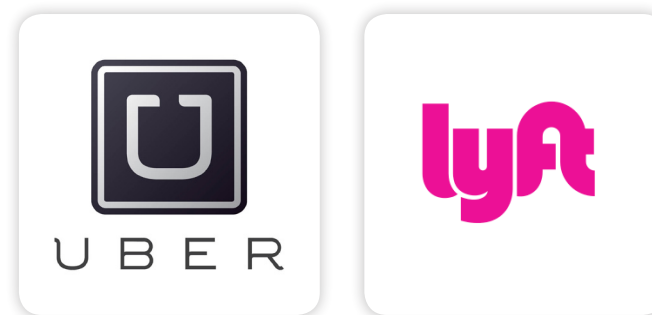
관련업체들의 빠른 투자 행보

실제 이같은 흐름에 따라 차량 공유 업체, 자동차 제조 업체, IT 업체들은 차량 공유 플랫폼 기업에 대한 투자 및 제휴를 발 빠르게 진행하고 있다. 소프트뱅크는 세계 최대 차량 공유 업체 우버에 10조 4,500억원을, 중국 최대 차량 공유 업체 디디추싱에 22조3,800억원을 투자하는 등 전세계 이동 서비스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구글(Google) 및 제너럴모터스(GM)도 미국 2위 차량 공유 업체 리프트에 투자를 단행한 바 있다. 폭스바겐은 이스라엘 차량공유서비스 업체 겐에 3,300억원 가량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차는 동남아 최대 차량공유 업체 그랩(Grab)에 2,800억을 투자, 현대차 단일 투자로 사상 최대 규모의 투자를 단행했다.

이렇듯 여러 글로벌기업들이 차량공유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세계적으로 라이드셰어링 업체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자.

❖ 미국 - 우버(Uber)와 리프트(Lyf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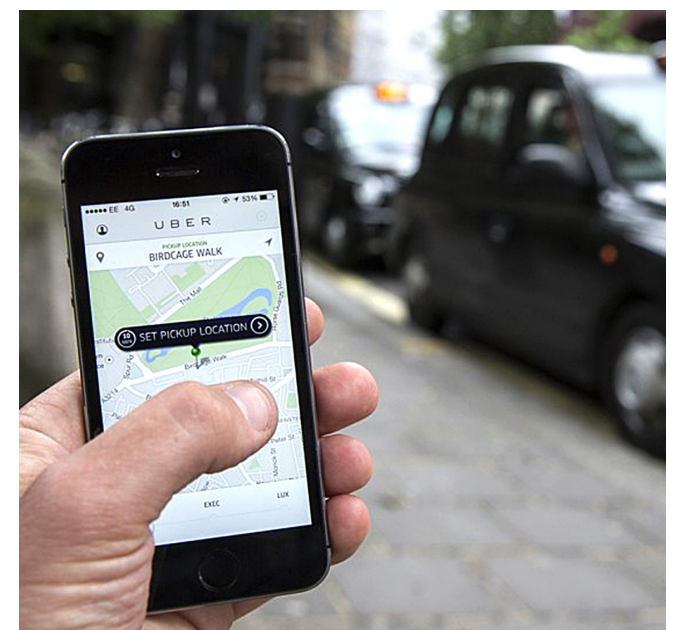
미국은 라이드셰어링분야를 개척한 선도국가다. 우버와 리프트가 시장을 양분하고 있다. 2018년 기준으로 우버가 미국 내 70%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했고, 나머지를 리프트가 나눠 갖고 있다.

우버는 09년 고급리무진 호출 앱 서비스를 개발한 샌프란시스코의 IT 벤처로 시작해 전문 기사가 아닌 가까운 일반인의 차량을 호출해 공유하는Ridesharing의 대표적인 기업이다. 설립한지 2~3년만에 뉴욕, 파리, 런던, 시드니, 멕시코시티 등 주요 도시에 진출하는 등 현재 60개국 600개 이상 도시로 사업 영역을 확장했다. 뿐만 아니라 Uber Eats, Uber Freight, Uber Elevate 등 영역 다각화를 통해 통합 모빌리티 플랫폼으로 성장 중이다. 기업가치가 130조 이상으로 추정되며, 올해 미국 증시에 상장할 계획인데 130조란 평가금액은 미국 전통 완성차 브랜드 3사(GM, 포드, 피아트크라이슬러)의 가치를 합한 것보다 큰 액수이다.

이처럼 엄청난 잠재적 가치를 평가받는 우버는 누적 100억 회 운행, 매일 1,500만건 운행 달성. 전세계 300만 명의 등록 운전자와 월간 7,500만 명의 이용객이라는 글로벌 운송 네트워크를 구축한 라이드셰어링의 대표기업으로 자리매김했다

우버의 성공은 많은 젊은 스타트업 기업에 영향을 주었다. 우버의 빈틈을 노린 리프트나 당시 우버의 확장을 지켜본 중국 유학생 쉐웨이와 싱가포르 유학생 앤서니 탄 모두 초창기인 2012년 라이드셰어링 영역에 뛰어들어 각각 디디추싱과 Grab을 설립한다. 특히 우버의 갈등해결 방법과 초기 대규모 펀딩을 통한 빠른 확산 속도는 이후 후발주자들에게 많은 귀감이 된다

리프트는 2012년에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설립된 IT회사로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일반차량을 찾아 카풀을 매칭시키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면서 시작했다. 실용적인 대학가를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어 북미 35개 도시로 진출했다. 북미지역 시장점유율 2위로 Uber와 양강체제를 구축하고 있으며, Uber와 달리 외연 확장 보단 북미 지역에 집중하는 전략이다. 사업 영역도 전통적인 라이드셰어링에 집중하면서 손실을 최소화하고 있다. 대신 자동차 제조업체, IT업체와의 활발한 파트너십을 구축하면서 미래에 대한 투자를 이어가고 있다. 우버의 오퍼 리스크가 발생할 때마다 기부 캠페인 등 선량한 기업 이미지를 부각해 반사이익을 얻어왔다. 누적 10억 회의 운행을 기록했으며, 전체 140만 명의 등록 운전자와 월간 2,300만 명의 이용객을 기록하고 있다.





❖ 중국 - 디디추싱(DiDi Chuxing)

DiDi는 5.5억 명의 가입자로 회원 수 기준 세계 최대의 Ridesharing 업체로 성장했다. 미국에서 Uber의 성공사례를 보고 인터넷 자이언트인 텐센트(Tencent)의 지원을 받는 디디다처(DiDi Dache)와 알리바바(Alibaba)가 지원하는 콰이디다처(Kuaidi Dache)가 각각 WeChat과 Alipay를 장착한 택시 비즈니스를 시작했다.

2014년 2월, 세계최대 시장인 중국에서의 성공을 자신하며 우버가 중국에 뛰어 들었다. 당시 글로벌 1위이고 각국에서 신규사업을 확장하던 Uber가 중국에서 시장점유율을 높여가자, 디디와 콰이디는 Uber를 몰아내기 위해 합병을 결정하고, 합병회사의 이름을 디디추싱으로 정한다. 더 나아가 디디추싱은 2015년 9월, 우버의 전통적인 라이벌인 미국 리프트에 1억 달러를 투자해 Uber의 심장부에서 경쟁자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위협을 가하는 한편, 인도의 Ola, 동남아의 Grab과도 협력관계를 체결하며 반 우버 동맹을 만드는 입체적 전략을 썼다.

결국 우버의 CEO 칼라닉은 2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한 결실을 맺기 힘들다는 것을 깨닫고, 중국 사업을 디디추싱에 매각하며 중국에서 철수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겪어 디디추싱은 우버가 가지고 있던 7%의 시장점유율을 더해 중국에서 94%란 압도적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게 된다.



❖ 동남아 - 그랩(Grab)

그랩은 미국에서 우버의 성공을 보고 싱가포르를 기반으로 한 동남아시아 최고의 모바일 플랫폼으로 성장했다.

App 기반의 각종 서비스가 부재되어 있는 동남아 시장에 차량공유를 기반으로 배송서비스, P2P 대출, 모바일 쇼핑, 음식배달 등 다양한 영역에 걸쳐 플랫폼을 확대하고 있다. Grab은 18년 현재 동남아시아 8개국(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태국, 미얀마, 캄보디아)의 235개 도시에서 비즈니스를 영위하고 있으며, Grab의 전자 지갑 GrabPay는 동남아시아 굴지의 모바일 지갑이 되어있다. 2017년 8월 Grab은 Softbank, 디디추싱 및 Toyota로부터 25억 달러의 투자를 받았으며, 18년초 기업가치는 60억 달러로 추산된다. 그랩은 모빌리티 플랫폼 중 가장 생태계를 넓힌 진정한 의미의 플랫폼 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한국의 현대차그룹, SK그룹도 Grab에 투자한 바 있다.

원래 이 지역에 진출한 우버와도 경쟁관계에 있었지만, Grab의 우버 동남아시아 사업 인수로 인해 2018년 3월부터 이 지역의 독점적 사업권을 가지게 되었다. 동남아지역에서는 Grab이 압도적인 위상을 가지고 있으나, 인도네시아에서는 초창기 사업의 구상 파트너이자 하버드 대학 친구였던 나디엠 마카림이 창업한 고젝(Go Jek)과 양강구도를 이루고 있다.

❖ 한국 - 카카오톡 카풀

한국은 카카오톡 카풀이 있지만 앞서 언급했듯 아직 라이드셰어링 산업에서는 걸음마도 시작하지 못한 상태다.

전문가들은 국내 업체들은 법적 규제 및 기존 운송업계의 반발 등에 따라 라이드셰어링 시장 경험 축적이 어려운 상황에 있어 글로벌 산업생태계의 변화에서 소외될 우려가 있다고 본다. 세계산업의 흐름에 뒤처지지 않으면서 운송업계와의 공생을 위한 적절한 접점을 찾아야 할 시점이다.

지금까지 알아본 바와 같이 차량공유의 시대는 머지 않았다. 카풀서비스, 나아가 자율주행차량의 공유 시대에서 자동차 산업에 속해있는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듯하다.

출처 하이투자증권 고태봉 [Taas 3.0의 시대]

		Car Sharing		Ride Sharing				
국내 현황	렌트카	 쏘카	 그린카	 카셰임	카풀	 풀러스	 쏘카풀	 럭시
		 피플카	 씨티카			버스	 콜버스	 벅시
해외 현황		ZipCar, GoDrive, Lyft (미국) DriveNow, CartoGo (독일)			Uber (미국), 滴滴出行 (중국) BlahBlah Car (스페인)			

※ 카카오톡 택시, 카카오톡 드라이버는 020 개념에 더 가까운 모델로 판단해 제외함

차량공유서비스 '우버' 개요

런던과 파리, 로마 등 유럽 주요 도시 및 미국등 현재 전세계 40여개 도시에서 이용 가능

1



스마트폰에 '우버' 앱 다운로드 및 접속

2



이름·전자메일·주소
신용카드 정보 등 입력

3



우버 앱으로 배차 신청

4



승객 현재위치·
목적지전송

5



우버 기사 프로필 및
이동 소요시간·비용 등
배차 내역 실시간 전송

6



우버에 가입된
차량으로 이동

7



요금은 앱에 입력된
신용카드 정보로 자동결제

2019년 제왕의 포효가 울린다!

뮤지컬 “라이온 킹”

글 사진 노경팀 윤채영 주임

‘브로드웨이를 여행하는 한국인들의 관람 1위 뮤지컬’, ‘브로드웨이 역사상 가장 역동적이고, 가장 독창적이며 가장 흥분되는 공연’이라는 평을 받는 뮤지컬 ‘라이온 킹’. 뮤지컬 ‘라이온 킹’이 탄생 20주년 기념 인터내셔널 투어로 국내 무대를 찾았다.

관전 포인트 셋

첫 번째 관전 포인트는 **좌중을 압도하는 오프닝**이다. 먼저 개코원숭이 주술사 라피키가 ‘서클 오브 라이프(Circle of Life)’를 부르며 무대를 연다. 이와 함께 무대 양옆의 퍼커션 연주자들이 연주를 시작하면 공연장은 아프리카 세렝게티 초원의 분위기로 바뀐다. 이어 객석 뒤편을 비롯해 무대 사방에서 동물로 분장한 배우들이 튀어나오고 무대 위에 이들이 다 모였을 때는 동물의 왕국을 보는 듯한 장관이 펼쳐진다. 이 장면에서는 객석과 무대의 경계 없이 공연장 전체가 어우러져 관객이 배우들과 함께 호흡하고 즐기도록 해 생동감을 느끼게 한다.

두 번째는 **오리지널 뮤지컬에서 그대로 가지고 온 거대한 스케일의 무대 장비**다.

예를 들어 프라이드랜드의 언덕, 코끼리 무덤, 대형 롤러로 구현된 들소 떼 질주 등은 원작 애니메이션의 장면을 실사화한 것처럼 묘사해 감탄을 자아낸다. 특히 극 중반부, 조명과 무대 장치로 표현한 밤하늘 속 무파사의 얼굴 형상이 움직이며 말하는 모습이 나올 때는 객석의 탄성이 쏟아진다.

세 번째는 **단순하지만 힘있는 스토리 라인**이다. ‘라이온 킹’이 아이부터 어른까지 폭넓은 관객층을 가진 이유는 대사가 스토리를 이해하는 데 우선적 요소가 아니라는 점에 있다. 물론 오리지널 공연이기 때문에 무대 양옆에 설치된 화면에 자막이 나오긴 하지만 여타 뮤지컬에 비해 대사의 중요성이 낮아 자막이 없어도 감상에 지장이 크지 않다.

아울러 한국적인 정서를 녹인 대사의 변형은 소소한 재미를 선사한다. 등장인물들의 대사 중에는 대구의 서문시장, 에버랜드, 번데기 샌드위치 등 한국 문화가 담겨 있다. 제작진이 한국에서 펼쳐지는 공연을 위해 특별히 준비한 일종의 서비스다.

마스크, 퍼펫(꼭두각시) 등으로 표현한 캐릭터들의 외양 역시 독창적인 볼거리다. 예를 들어 주요 배역인 심바, 무파사, 스카 등 사자들은 배우의 머리 위에 얹힌 가면으로 얼굴이 묘사된다. 특이한 건 이 가면이 허리를 앞으로 숙이면 배우 얼굴 앞으로 떨어져 네 발로 걷는 사자처럼 보이도록 한다는 점이다. 미어캣 티몬은 배우가 퍼펫을 들고 조종하며 대사와 움직임을 표현한다. 이런 화려한 장비들은 정글의 수많은 동물들을 다양하고 재미있는 형태로 보여줌으로써 지루할 틈이 없게 한다. 아울러 배우들의 실제 얼굴을 드러냄으로써 각 캐릭터의 감정을 디테일하게 전달하는 효과를 보여준다.

주요 캐릭터 뿐만 아니라 극 중 등장하는 모든 동·식물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다양하게 표현된다. 하늘을 나는 새는 배우가 장대에 달린 새 모형을 흔드는 것으로 표현된다. 코끼리는 배우 네 명이 다리 하나씩을 맡아 거대한 모습을 구현한다. 심지어 초원의 풀숲까지도 배우들이 머리에 잔디 모형을 인 것으로 형상화해 신선한 볼거리로 눈이 쉴 틈을 주지 않게 한다.

무엇보다도 ‘라이온 킹’의 화룡점정은 배우들의 호연에 있다. 18개국 출신의 각양각색 배우들의 개성만점 노래와 연기는 세계 어린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까지도 매료시킬 만한 환상적인 뮤지컬을 완성한다. 브로드웨이의 오리지널 공연을 그대로 가져온 무대가 무려 20여 년간 전 세계 어린이부터 어른 관객까지 매료시켜왔다는 건 이 뮤지컬이 얼마나 많은 흥행 요소를 갖춘 작품인지를 보여주는 방증이다.

서울/부산 공연일정 안내

공연명 ‘라이온 킹’ 인터내셔널 투어

러닝타임 150분

관람연령 8세 이상

서울

공연장소 서울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

공연기간 2019년 1월 9일 ~ 3월 28일

공연시간 평일(화~금) 오후 8시

주말(토~일) 및 공휴일 오후 2시, 7시

-월요일 공연없음

-설연휴 2/4(월) 2시, 2/6(수) 2시, 7시

-2/5(화), 3/3(일) 7시 공연없음

관람료 R석 17만원, S석 14만원, A석 9만원, B석 6만원

부산

공연장소 부산 드림씨어터

공연기간 2019년 4월 (예정)

대구지역 공연장 꿀팁 안내

계명아트센터

주소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 1095

주차 공연 3시간 전에서 공연 종료 후 1시간까지 주차장을 이용 할 수 있다. (요금 : 2,000원)

좌석

Q1_ OP석은 본인이 배우를 가까이서 보는 걸 좋아하는지, 무대 전체를 보는 걸 좋아하는 지에 따라 달라진다. 전자라면 OP석이 좋지만 후자라면 좀 더 멀리 있는 좌석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Q2_ 1층 15열 이상의 경우 2층 앞열이 더 가깝기 때문에 가격을 고려해보고 2층을 선택하는 것이 더 경제적일 수 있다.

할인 우리회사는 계명가족회사로 kms게시판에서 공연별 할인가를 이용할 수 있다.

대구콘서트하우스

주소 대구 중구 태평로 141

주차 공연을 관람하신 분들에 한해, 공연 종료 후 30분 까지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다. (무료)

좌석

Q1_ 한 사람에게 집중해야 하는 공연인 독주회나 독창회는 앞쪽 중앙을 추천한다. 큰 공연장일수록 내 앞에 많은 관람객들이 있는 것보다는 오롯이 공연에만 집중할 수 있는 앞 좌석이 좋을 때문이다.

Q2_ 악기의 조화로움이 중요한 오케스트라 공연은 앞보다는 뒤쪽이 악기음향을 조화롭게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뒤쪽 중앙자리가 좋을 것이다.

Q3_ 피아노 독주회는 Q1과 같이 독주회이기 때문에 앞쪽을 추천하지만 연주자의 위치 때문에 앞쪽 왼쪽좌석을 선택하는 것을 추천한다.

Q4_ 만약 지휘자의 지휘를 보고 싶다면 합창석이 좋을 것 같다. 무대 앞쪽 객석은 지휘자의 뒷모습만 볼 수 있지만, 합창석의 경우 지휘자를 앞에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Q5_ 클래식공연을 처음 관람하는 사람들은 그랜드 홀에서는 1층 중앙의 뒤쪽 좌석이 좋을 것이다. 아마 대부분의 클래식 공연을 무난하게 즐길 수 있을 것 같다.





겨울철 눈길·빙판길 안전운행 8계명

글 사진 총무팀 안정희 대리

아침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기 시작하는 겨울!

겨울 운전은 조심해야 할 것들이 더욱 많아집니다.

일단 '급'자가 들어가는 것은 피하고, 녹았던 눈이나 비가 도로 표면의 매연과 먼지와 함께 뒤엉켜 만들어지는 검은색의 블랙 아이스도 조심해야겠죠. 겨울철 안전운전을 위해 운전자들이 꼭 알아야할 것에 대해 알아봅니다.

01 운전경력 상관없이 '정보운전'에 힘쓰자!

오히려 경력운전자들이 교통사고율이 높은만큼, 운전경력이 많다하더라도 방심하지말고 도로 상황을 살피어 운전한다. 특히, 라디오를 통해서 도로환경을 파악하여 정보운전에 힘쓰는 것이 중요하다.

02 급제동, 급가속, 급핸들 조작은 절대 금물!

산모퉁이, 저수지 부근, 해안도로 터널이 끝나는 지점 등은 블랙아이스 현상이 주로 늘어나는 장소이다. 온도가 낮거나 그늘이 많기 때문에 결빙된 도로가 많으므로 이런 도로에서는 특히 급제동, 급가속, 급핸들 조작을 피해야한다.

03 핸들은 자동차가 미끄러지는 쪽으로 조작한다!

만약 운전 중 타이어가 미끄러지는 것을 감지했다면 핸들을 차체가 미끄러지는 방향으로 틀어야 한다. 보통 타이어가 미끄러지는 쪽과 반대로 틀어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 자동차 스펀현상이 더욱 심화되기 때문에 반드시 차체가 미끄러지는 방향으로 조작해야한다.

04 브레이크 조작은 2-3번으로 나눠서!

브레이크는 2-3번 정도 나눠서 밟는 것이 좋다. 한번에 힘을 주어 밟으면 제동이 잘 안될뿐더러 브레이크 작동 자체가 멈추거나 미끄러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브레이크 작동을 나눠서 해야 한다. 평소에도 브레이크를 나눠 밟는 습관을 들여야 가능하므로 브레이크를 나눠 밟는 연습을 미리미리 하자.

05 자동차 타이어가 도로에서 공회전할때

이럴 경우 클러치와 엑셀러레이터를 사용해 자동차를 앞뒤로 흔들어 보면 의외로 탈출이 쉬운 경우가 많다. 타이어가 공회전한다고 당황하기 보다는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탈출을 시도하는 것이 좋다.

06 충분한 차간거리 유지와 앞차 자국 따라가기

미끄러운 도로에서는 차간거리를 평소보다 충분히 유지하는 것이 좋고 앞차가 통과한 바퀴자국을 따라서 도로를 달리는 것이 안전하다. 빨리 달리는 차를 피해 서행차선에서 천천히 가야 한다. 1차선에서 서행하면 다른 차에 방해가 되고 2차선으로 추월하려는 차량에 의한 사고를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07 빙판길에서의 수동변속 차량 운전방법!

기어를 2단에 넣고 사이드 브레이크를 약간 잡아당긴 다음 반클러치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눈이 오는 눈길에서는 커브 진입 전에 감속운전을 하는 것이 필수이다.

08 30km이상 속도에서는 스노우 체인이 흥기?

폭설이 내린 도로나 얼어붙은 빙판길에서는 자동차가 미끄러지고 공회전하기 십상이다. 이럴 경우 스노우 체인을 장착했어도 감속해야한다. 스노우 체인을 장착한 운전자들은 방심하는 마음으로 속도를 내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 스노우 체인을 착용하지 않은 것보다 더 위험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한다.

❖ 추가적인 겨울철 안전운전법

- 1 차량에 눈이 쌓였다면 출발하기 전 충분히 제거해야한다. 귀찮은 마음에 운전석만 치우고 조수석, 뒷편, 차량위 눈을 치우지 안하고 급하게 출발할 경우 시야가 가리거나 차량위 눈이 운행중에 떨어져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 2 눈이 올때나 눈이 온 후 날이 흐려 어둡게 느껴질 때는 주간에도 전조등을 켜야한다. 상대방부터 나를 인식시켜 방어운전의 효과가 있다.
- 3 겨울철 야간운전은 안하는게 최선이다. 낮에 비해 기온이 급속이 떨어져 도로가 거의 영하의 상태로 돌변해 곳곳이 다사고 위험구간이다. 최대한 감속 운행하며 핸들을 꼭 잡고 전방주시를 게을리 하면 안된다.
- 4 빙판길 일수록 차간 거리를 충분히 확보하고 엔진브레이크를 사용해 운행해야한다.
- 5 커브길 진입직전에는 미리 감속해야한다. 감속해도 미끄러졌다면 당황하지 말고 핸들을 좌우로 빠르게 조작하며 차량방향이 차선을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한다. 핸들은 차량 엉덩이가 미끄러지는 방향으로 같이 돌려주어야 차 방향이 원위치 된다.
- 6 스노우 체인은 갖고 다녀도 장착이 쉽지 않은 초보운전자가 많으므로, 스노우스프레이는 접지력을 향상시키니 출발전에 타이어에 뿌리고 출발하자.
- 7 언덕길은 오르기 직전 미리 1단이나 2단의 저단기어로 변속 후 중간에 다시 변속하거나 멈추지 말고 저속으로 올라가야 한다.

출처_한국교통안전공단

편집자가 선정한 BEST CUT

이달의 Best Cut & Writing으로 선정되신 직원분들께 축하를 드리며
소정의 상품권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앞치마 두른 경영진

새해 첫 점심을 직원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 경영진들이 손을
걸어올리고 초록 앞치마를 돌렸다. '맛있게 드세요' '잘 먹겠습
니다' 오가는 인사 속에 싹트는 인정. 정성껏 끓인 따끈한 떡
국과 함께 새해 모두 건승하시길 기원한다.



화신맨, 서울 가다!

20기 박철형, 이상운, 노현대, 최영욱 주임이 서울에 갔다.
테슬라 s모델을 직접 시승하며 자율주행 성능을 경험했다.
주행 중 핸들에 손을 떼고 달리는 기분은 어땠을까?
젊은 화신맨과 멋진 기술이 만난다는 건 열정에 기름붓기다!

Best Writing

프레스기술팀 백영기 차장

해외법인 신공장 설립 후, 해외 각 법인의 현지 직원들 교육했을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낀 것 같네요. 그 당시, 우리 화신도 이제 해외공
장(중국, 인도, 미국)이 생겼다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었으며 그것은
회사, 국가에 대한 자부심이었지요. 그 경험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
는 소중한 경험이에요

생산2부 프레스2반 석학수 조장

설레기도 하고 한편으로 뿌듯하기도 합니다. 화신에서 이렇게 32년간 근무
하고 무사히 끝맺음할 수 있었던 것은, 제가 잘했기 때문이 아닌 회사가 지
금까지 존재하였고 동료 선배들이 저를 잘 이끌어 주었기 때문이라 생각
해요. 감사한 마음이 큼니다.

사우동정



결혼을 축하합니다

2018년 10월 27일 | 예산공장 생산팀 융접반 박범준 사원
2018년 11월 04일 | 생산1부 융접2반 신중호 사원
2018년 11월 11일 | 생산1부 조립1반 윤혁진 사원
2018년 11월 17일 | 정보기술팀 김태영 과장
2018년 11월 17일 | 프레스기술팀 이동화 과장
2018년 11월 18일 | 총무팀 안정희 대리
2018년 11월 18일 | 프레스기술팀 백영기 차장 자녀

2018년 11월 18일 | 생산1부 조립2반 김진덕 사원 자녀
2018년 11월 25일 | 생산2부 융접1반 윤태종 사원
2018년 12월 01일 | 화산정공 생산1팀 생산2반 박성호 사원
2018년 12월 08일 | 화산정공 생산2반 이분순 사원 자녀
2019년 01월 05일 | 설계2팀 정동주 대리
2019년 01월 12일 | 화산정공 품질관리팀 여재호 과장
2019년 01월 26일 | 사시기술팀 손연호 대리



탄생을 축하합니다

2018년 10월 25일 | 설계1팀 장용민 부장 득녀
2018년 10월 29일 | 생산1부 정승원 과장 득남
2018년 11월 03일 | 예산공장 생산팀 조립반 성기정 사원 득녀
2018년 11월 10일 | 생산2부 프레스2반 황형준 사원 득남

2019년 01월 04일 | 구매팀 이해정 대리 득남
2019년 01월 08일 | 제품시작팀 정용표 사원 득녀
2019년 01월 15일 | 예산공장 생산팀 안희상 과장 득남
2019년 01월 23일 | 예산공장 생산팀 조립반 김홍열 사원 득남

원고를
기다립니다!

사보내 코너와 관련된 글은 물론 화신의 여러가지 소식들, 재밌는 이야기, 알고 싶은 것
등 원고를 보내주시면 소정의 상품권을 드립니다.

편집후기

언 땅을 뚫고 새싹은 자란다

겨울이 춥지 않으면 그건 겨울이 아니지
시련이 힘들고 고단하지 않으면 그건 시련이 아니지

영하의 매서운 추위를 견디고
칼날 같은 바람을 맞서며
새싹은 봄을 준비한다.

끝나지 않는 겨울은 없다

겨울이 아무리 매서워도
봄은 온다

연두빛 작은 새싹이 이겨낸다면
우리도 못할 것 없다

언 땅을 뚫고 새싹은 자란다
희망이 자란다



 HWASHIN